



“로잔, ‘성별은 남녀만’ 등 성경적 생명윤리 천명하길”

기독교생명윤리협, ‘로잔운동에 바라는 생명윤리질서’ 세미나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상임대표 이상원 교수)가 18일 오후 서울 한신인터벨리24빌딩 세미나실에서 ‘로잔운동에 바라는 생명윤리질서’라는 주제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발제 시간에는 이승구 석좌교수(함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로잔운동과 성경적 생명윤리 질서, 신효성 박사(명지대학교 객원교수)가 ‘한국 로잔에 바라는 생명윤리 질서’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했다.

먼저 이승구 교수는 “로잔언약은 기본적으로 선교를 인강화 작업으로만 이해하려는 WCC적인 선교 이해에 동의하지 않는 복음주의자들이 한 선언이며 동시에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같이 강조한 것이라는 데에는 모든 사람이 동의한다. 그래서 1974년 로잔 회의를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라고 했었다”며 “로잔운동과 관련해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꼽는다면 빌리 그라이엄과 존 스토트이다. 두 사람이 하고자 한 것은 바로 세계복음화를 위해 WCC가 하고 있는 것과는 다른 ‘복음주의적 선교 운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빌리 그라이엄은 첫 번째 로잔대회 개최사에서 복음 전도와 관련한 두 가지 목적을 분명히 진술했다. 1) 세계복음화를 진척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며 2) 세계복음화의 연합 전선에 복음주의자들이 함께 하도록 하는 것이었다”고 했다.

그는 “1974년 스위스 로잔에 150개국에서 온 2,400여 명의 복음주의자들이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의 적절한 관계를 논의하기 위해 모였고, 이 문제에 대한 선언서를 만들어 선언한 것이 ‘현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라고 언급이 되는 로잔언약이다. 세계복음화를 위한 국제회의는 세계의 다양한 그리스도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모임”이라며 “WCC는 다양한 기독교 교단과 기독교 단체들의 모임이며 이를 ‘세계교회협의회’라고 한다. 이에 비해서 로잔회의는 각각의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면서 개인 자격으로 참여한 것이다. 그러나 로잔언약이 교회를 매우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하다. 로잔언약은 선교의 기본적 기관을 교회라고 단언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정신을 유지하면서 1989년 7월 10일부터 20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2차 로잔대회가 개최되었고 1910년 에디나버에서 열렸던 선교사 대회 를 기념하면서 100년 후에 2010년 10월

16일부터 25일까지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제3차 로잔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제4차 로잔대회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함께 모여서 논의하려고 준비하고 있다”며 “로잔언약에서는 복음전도와 사회적 책임 모두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것을 확실히 하면서 선언했다. 그런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다. 1974년 이후 이 로잔언약에 근거하여 복음주의의 우파 주장도 나왔고 복음주의 좌파의 주장도 나왔으며, 아주 복잡한 관계가 복음주의 안에 형성되었다는 것이 역사적 현실이다. 이는 한국복음주의권 안에서 그대로 나타난 현상”이라고 했다.

이어 “로잔언약을 이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 예를 들어서, 19세기와 20세기 초에 나타났던 자유주의 방식으로 로잔언약을 이해하는 것은 복음주의의 운동으로서의 로잔언약을 훼손하는 것이다. 또한, 이전에 사회복음주의와 같은 방식으로 로잔언약을 이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낳는다. 더구나 해방신학과 같은 방식으로 로잔 언약을 이해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낳을 수 있다”며 “오늘날은 1974년 로잔언약이 선언된 후에 더 복잡한 상황이 되었고, 논의도 더 복잡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2024년에 열리는 송도에서의 모임을 비롯해서 로잔운동은 과연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가? 이를 위해 몇 가지 명제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첫째, 세계 복음화에 대한 초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둘째, 복음화는 기본적으로 ‘천국 복음을 선언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진정으로 천국 복음을 믿고 천국에 참여한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넷째, 복음화는 간접적으로 사회를 변화하는 부산물을 낳는다. 다섯째,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복음화를 염두에 두고 행동하는 것이 로잔운동이며 여섯째, 복음주의적 성경관에 성경을 씌야 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복음전도의 우선성을 강조하는 로잔운동은 결과적으로 그렇게 복음에 의해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의 여러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하나님을 아는 빛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의 빛을 드러내야 하는데 생명윤리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와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일반 은총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생명을 존중하는 데로 나아가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적 생명 윤리 질서에 충실해서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도록 하는 일을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선 세 가지 측면에서 로잔 대회에서 뚜렷한 입장을 명확히 선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한다”며 “첫째로, 배아를 비롯한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존중하는 입장을 온 세상에 명확히 선언하여 주길 바란다. 로잔운동이 복음주의 기독교 운동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것이니 명확히 성경적인 입장에서 우리들은 배아를 비롯한 모든 단계의 인간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선언해야 할 것이다”고 했다.

이 교수는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질서를 반영하는 성(性)에 대한 이해가 개인과 가정과 사회 속에 나타나게 해야 한다고 선언해 주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을 분명히 하며, 그것 이외의 성을 인정하려는 시도들이 그쳐야 한다고 명확히 선언해 주시길 바란다”며 “셋째로, 각국에서 혹 시행되고 있거나 한국의 경우처럼 일부 사회 세력이 입법하려고 하는 포괄적인 차별 금지법이 법으로 제정되지 않도록 하는 일에 모두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로잔운동이 명확히 선언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한국의 보수적 복음주의자들이 말하는 바를 이해하나 한국교회가 바라는 대로는 표현할 수 없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만일 그렇게 한다면 로잔운동에 대한 실망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부디 바라기는 아주 명확한 성경적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생명윤리를 천명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18일 오후 한신인터벨리24빌딩 세미나실에서 생명윤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최승연 기자



이승구 교수



신효성 박사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헌법에도 일치하는 선언 내용”이라고 했다.

신 박사는 “인간은 천부인권의 생명권을 가지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에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여성을 지원하고 부부에게 건강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최고의 기회를 제공할 책무가 있음을 재확인한다. 제네바 합의선언에는 낙태가 가족 계획의 수단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있다. 우리나라도 1978년 정부의 가족계획 사업 목표량을 보면 루프, 난관수술, 피임약, 콘돔, 낙태수술, 정관수술 목표량으로 정하여 낙태를 피임의 하나의 방법으로 간주하여 목표량을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낙태와 관련된 모든 조치나 변경 사항은 국가입법절차만 결정될 수 있다고 강조하여, 헌법의 효력범위는 국가와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간섭원칙이 발동되어 국가 또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만 결정될 수 있다고 하여 국제법상 불간섭원칙에 위반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 세대의 신실함이란 세상의 진리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 특히 남자와 여자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번 선포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께 모든 이들이 나쁜 마음과 감사와 찬양과 온전한 충성을 돌려야 한다는 내슈빌 선언은 내슈빌에서 개최된 남침례회 윤리와 종교자유위원회 총회에서 나온 성경적 남성과 여성위원회에서 2017년 6월 29일 공개한 선언”이라며 “내슈빌 선언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남편과 아내로서 연합한 혼인 관계 이외의 성관계를 정당화 하는 것을 거부함으로써 성관계는 결혼생활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선언한다. 혼인관계 이외의 성관계는 부도덕한 것으로서 비윤리적이고, 종교적으로도 옳지 않은 것으로 간통죄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과 동일한 견해”라고 했다.

신 박사는 “내슈빌 선언은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성별의 차이와 구별을 인정하면서도 그런 차이가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불평등하게 여겨서는 안 된다고 선언한다. 헌법상의 양성평등 원칙과 실

정법상 양성평등기본법의 입법 목적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의 차이가 타락의 결과라든지 극복되어야 할 비극이라는 것을 거부한다고 선언한다”며 “내슈빌 선언은 남성과 여성의 성별 이분법 원칙에 근거하고 있고, 남성과 여성의 생식구조의 차이는 남성 또는 여성으로서의 자아개념을 누구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설계임을 선언하고 있다. 생식기 장애를 가진 사람들도 생물학적 성별을 받아들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고 동성애 또는 트랜스젠더로서의 자아개념을 취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목적과 구속사역에 일치한다는 것을 거부함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성적 인 범죄에 대한 종교적인 용서와 회복의 과정을 통하여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리즘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슈빌 선언은 동성애에 대한 성적 매력에 하나님의 원래 피조물에 대한 자연스러운 선의의 한 부분이라거나 또는 인간을 복음의 소망 밖에 두는 것을 거부한다. 동성애의 부도덕함이나 트랜스젠더주의를 인정하는 것이 죄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죄를 회개함으로써 종교적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했다.

끝으로 신 박사는 “임신 2주부터 임신 4주에 이르는 배아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호받고 있지만, 자궁에 착상한 임신 4주부터 출산 전까지의 태아는 현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헌법의 낙태죄 조항은 그 효력을 상실함으로써 어떠한 법률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국내법 실정에 한국 정부가 제네바 합의 선언에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성경에 근거하여 결혼과 임신에 대하여 바로 알고, 동성애와 일부다처제 등의 관계성을 부인하며,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창조의 자연스러운 신의 일부임을 부인해 동성애적 부도덕이나 트랜스젠더리즘을 용인하는 죄를 선언한 내슈빌 선언을 계승 발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한편 세미나는 예배, 헌법, 발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박운영 목사(소망의교회)의 인도로 드려졌으며 백선영 목사(송파가나교회)가 대표기도를 드렸다. 이어 이상원 교수가 예루살렘 회기가 주는 교훈(사도행전 15:28-29)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또 이명진 원장(명예이비인후과, 상임운영위원장)이 환영사를 전했다. 최승연 기자

현대엔지니어링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서울-동탄 GTX-A 개통완료!」

동탄, GTX로 감탄하다!

힐스테이트 동탄 르센텀 오피스텔

GTX-A 개통완료
(수서-동탄 구간)

선남숲 영구조망
(일부호실 제외)

선착순 특별혜택

1833-3008

hillstate-le-centum.co.kr

“신앙의 진리 지키되, 신학·과학·문화에 관해 충분한 자유 줘야”

지형은 목사, 최근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의 징계 건에 관해 자신의 심정 전해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76대 총회장을 역임했던 지형은 목사(성락성결교회, 서울제일지방사건)가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의 징계 건에 관하여 최근 한국성결신문 기독교신문에 글을 게재했다. 지 목사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사도신경의 첫 문장이라며 “이 두 문장은 과학적 진술이 아니다. 신앙을 고백한 내용이다. 성경 66권은 인류와 존재하는 모든 것을 구원하시려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하고 완결

된 구원의 계시다. 성경은 기독교 신앙의 유일무이한 기준이며 토대다. 성경은 글의 성격이 근본적으로 신앙 고백”이라고 했다. 이어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셋째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기록이 있다”며 “여기의 옛사는 오늘날 우리가 경험하는 하루가 아니라 ‘나는 생각한다’ 또는 해석한다. 창세기 1장의 옛사를 태양이 뜨고 지는, 정확히 말하면 지구가 자전(自轉)하면서 태양 주위를 공전(公轉)해서 생기는 하루로 해석하면 창세기 1장 1절의 창조는 6천 년 전의 사건이 된다. 나는 태초의 창조가 6천 년 전에 일어났다고 해석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학적 사실과 신앙의 고백

은 기독교 역사에서 종종 충돌했다. 갈릴레오 재판이 대표적”이라며 “이탈리아 파두아대학 교수였던 과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1564~1642)는 고배울의 망원경으로 관찰한 끝에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는 지동설(地動說)을 주장했다. 그는 이 발견을 ‘두 가지 주요한 체계에 관한 대화라는 책으로 발표했다’고 했다. 또 “당시에 교회는 천동설(天動說)을 가르쳤다. 과학적 발견과 신앙의 교리가 충돌했다”며 “갈릴레오는 69세인 1633년에 종교재판에 회부됐고 파문의 위협 속에서 자신의 과학적 발견을 철회했다. 그의 책은 금서 목록에 올랐다. 로마카톨릭 교회는 1992년에 갈릴레오를 정죄한 것이 잘못이었다고 선언했다. 359년에 걸친

긴 종교재판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과학은 대상을 관찰, 검증, 추론 하면서 과학적 사실을 규명해 간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가진 신앙의 내용은 그 시대의 과학과 문화적 인식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중세에 해성(코리델)은 신의 심판으로 여겼다. 1600년대에는 과학의 발전으로 해성의 출현과 그에 따른 인력의 변화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이 천체의 물리적 현상이라는 것이 알려졌다. 갈릴레오와 동시대 인물인 경건주의 창시자 필립 아담 스페너(1635~1705)는 이런 과학적 사실에 근거하여 해성이 물리적인 현상이지만 여기에서 신앙적인 교훈을 얻는다면 좋은 일이라고 했다”고 했다. 이어 “신학의 임무는 66권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진리를 각 시대와 문화권에 서 재해석하는 것”이라며 “신학적 작업이

신앙의 내용을 구성해 간다.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신학 자체가 곧 신앙은 아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지만 구별된다”고 했다. 더불어 “제도적인 교회는 신앙의 진리, 신학, 과학과 문화의 세 가지를 사려 깊게 분별해야 한다”며 “신앙의 진리는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한다. 그러나 신학과 과학 및 문화에 관해서는 충분한 자유를 주어야 한다. 빠르게 발전하는 과학 기술과 다변하는 문화적 상황에서 양자가 자유롭게 토론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지 목사는 “우리 교단의 신학 교육 기관인 서울신대학교에서 박영식 교수의 창조에 관한 신학 논의를 두고 이사회 의 징계위원회가 가동 중이다. 학교 내 교수협의회에서 징계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며 “현재 이 문제가 학교의 범위를 벗

어났다. 신학과 89학번 동기회에서 징계 반대의 입장문을 냈다. 신학계, 일반 학계, 교계에서 1400명이 넘는 사람이 신학적인 논의를 이유로 징계하면 안 된다고 서명했다. 한국기독교교양학회, 한국문화신학회, 연세대학교 신학교수 40명 등 공적인 단체들에서 같은 방향의 입장을 발표했다”고 했다. 아울러 “이사회와 학교 측에서는 교단 신학의 창조론을 지키는 것 같은데, 우리 교단의 창조론이 무엇이며 누가 그것을 정하는지 모르겠다”며 “서울신대학교 교수들의 학문적 양심과 소신, 이사회 행정의 신중함과 정당성, 이미 외부로 확대된 여러 상황의 원만함이 절실하다. 우리 교단 외부에서 온통 얘기들인데 교단이 떠밀려서 개입하는 모양새가 뭔가 걱정된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박영식 교수 “서울신대의 학문성 더는 훼손되지 않길”

17일 조직신학자들 등과 기자회견… “이사장·총장에 회개·재발 방지 촉구”

전국 조직신학자들·성공회대·승실대·연세대·과신대(과학과 신학의 대화)·박영식 교수가 최근 서울 연세대학교 원두우신학관 예배실에서 서울신대 박영식 교수 징계의결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을 개최

했다. 이날 박영식 교수가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 교수는 “지난 3월 법인 서울신대학교(총장 황덕형) 이사장 백운주 목사는 저의 창조신학이 ‘성결교단의 창조론을

반영하지 않으며, SNS에 올린 글이 교수의 품위를 손상시키고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며 중징계의결요구서를 제게 보냈다”며 “저는 교단 100주년 사업으로 출간한 「성결교회신학」 집필에 참여하였

고, 성결교회의 창조신학을 위한 논문도 작성했다”고 했다. 이어 “성결교회가 보수복음주의나 근본주의, 문자주의를 배격하고 웨슬리안 사중복음에 기초한 건강하고 유연한 신학을 전개해 온 정통성 있는 교단임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창조론과 관련하여 성결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자는 한결같이 ‘성경은 과학책이 아님을 밝히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황덕형 총장은, 지난 2020년 사이버 과학과 극단적인 문자주의에 근거하여 ‘예수 탄생이 5월’이라고 주장하는 공학박사에게 성서학 강의를 맡겨놓고도 ‘신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황 총장과의 논쟁 이후 2021년 2학기 학내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저를 ‘배후세력’ 혹은 ‘우두머리’로 지목하고 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고 했다. 이어 “바로 그때 외부에서 들어온 투서를 빌미로 법인 서울신대학교 이사장 백운주 목사는 저의 저서 「창조의 신학」(2018)과 기타 논문을 포함한 대대적인 사상검증(신학검증)을 지시했다”고 했다. 그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았던 2년 전의 보고서를 최근에 읽고 깜짝 놀랐다. 미리 짜놓은 프레임으로 저의 본의를 왜곡·위조하였고 작위적인 추론과 과장을 거쳐 저를 이단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며 “이후 조사위원회에서는 교수와 목사로서의 교권과 명예를 침해하는 질문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2년간의 괴롭힘이 부족했는지 학교 측은 최근에 또 다시 외부 투서를 빌미로 20년 전의 목사 안수 절차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총회 임원회에 질의하는가 하면, 이미 절차상 하자가 없다는 통보를 받았음에도 학교 보직교수가 직위를 이용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다른 내용과 함께 이를 기사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시도들이 그동안 서울신대학교와 성결교단이 다져 놓은 포



박영식 교수 징계의결 철회 요구 공동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장요한 기자

용적이고 복음적인 전통을 허물어 버릴까 염려스럽다”며 “또한 시대착오적인 주장을 엄밀한 학문의 장에 끌어들이는 본인들의 잘못을 은폐하고자, 성결교단이 그동안 지켜온 체면적 신앙과 균형 잡힌 신학을 보수복음주의로 퇴행시키려는 시도가 아닐까 의심한다”고 했다. 아울러 “성결교회의 전통과 서울신대학교의 학문성이 더는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신학 검증, 두 차례에 걸친 조사위원회, 자술서 서명 강요, 연구년 계획 변경 요청, 연구년 불허, 제출된 논문에 대한 조사와 검토에 이르는 이 모든 기획과 관련하여 백운주 이사장과 황덕형 총장에게 진심 어린 회개와 재발 방지를 촉구한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오픈도어 회장 “서구교회, 박해 지역에서 배울 것”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Open Doors US)의 CEO인 라이언 브라운이 박해받는 국가의 기독교 신자들이 직면한 현실을 보여주며, 서구 교회가 안락함과 물질주의에서 깨어나도록 촉구했다. 브라운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와의 인터뷰에서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할 때 목표가 그들을 박해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산”이라며 “박해받는 교회와 함께 할 때, 그들은 박해받는 바로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싶어 한다. 그들이 요청하는 것은 기도로 그들을 기억하고, 격려하며, 그들이 간증에 충실할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다. 이들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그곳에 두신 이유가 있다고 믿으며, 그 목적에 충성하고자 한다”고 했다. 브라운에 따르면, 박해받는 국가의 많은 기독교인들은 종종 큰 개인적 희생을 치르더라도, 문화적 순응보다 신앙을 우선시하고 있다. 그는 이 점을 서구 교회가 본받아야 할 가치로 지목했다. 그는 “우리는 깨어나야 하며, 우리가 처한 상황 가운데서 남아있지만 쇠망하고 있는 유산들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를 설계하신 방식에 대한 증거이다. 그분이 우리 모두를 하나로 모으실 때, 기도로 형제자매들을

격려하고, 적절하게 지원하며, 그들이 처한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될 수 있게 하는 기회를 가진다”라며 “그들은 이 값진 진주를 얻으려면 그리스도의 왕국이 우리에게 비용을 치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고 했다. 브라운을 오픈도어 사역으로 이끈 것은 서구 교회가 박해받는 신자들로부터 값진 교훈을 얻을 수 있다는 확신이었다. 오픈도어는 70개국 이상에서 활동하며 성경을 공급하고, 교회 지도자들을 교육하고, 실질적인 지원과 긴급 구호를 제공하며, 신앙으로 인해 박해와 차별을 받는 기독교인들을 돕고 있다. 그는 CP에 “여기 미국에서 우리가 점점 탈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이것은 우리 중 많은 이들에게 매우 낯선 영역”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의 박해받는 형제자매들은 우리보다 앞서가며, 큰 대가와 희생을 치르려고도 자기 신앙을 사용하여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 결정했다. 문화를 이용하여 신앙과 상호작용할 것인 결정된 것이 아니다. 이런 점이 서구에 있는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했다. 오픈도어가 기여하는 주요 사역 중 하나는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박해를 당하는 50개국의 순위를 매긴 세계감시목록(World Watch List, WWL)이다.



미국 오픈도어 선교회 CEO인 라이언 브라운. ©Lambert Creative Media 유튜브 채널

그는 또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크게 증가했으며, 그들의 집, 교회, 학교 및 병원의 파괴가 현저히 증가했다고 말했다. 세계감시목록에 따르면, 폭력과 박해로 인해 집을 떠난 기독교 신자들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미국 오픈도어는 1955년 네덜란드 선교사인 앤드류 형제(Brother Andrew)에 의해 설립되었다. 당시 그는 소련 공산권이던 폴란드의 박해받는 신자들에게 성경을 밀반입하는 일을 도왔다. 브라운은 오늘날 오픈도어가 변화하는 박해 상황에 적응하여 최근의 필요를 해결하는 방법을 공유했다. 브라운은 박해 국가에서 “기독교 신자들은 생계와 교육을 위한 기회에 대한 접근을 거부당한다. 가족을 돌볼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싶어 하고 떠나야 한다”며 “지역교회와 곁에 서서 그들에게 준비를 갖춰줘야 한다”고 했다. 유진 김 기자

사람을 연결하고
시간을 연결하고
공간을 연결하는

지금 이 순간도
LX는 미래를 만들고 있습니다

미래지향 에너지 LX 인터내셔널 | 글로벌 스마트 물류 LX 판토스 | 프리미엄 엔터테인먼트 LX 하우스 | 신소재 개발 LX MMA | 차세대 반도체 LX 세미콘 | 유망 스타트업 LX 글라스

LX
LINK FOR NEXT

진실화해위 “한국전쟁 전후 종교인 약 1천 700명 학살 첫 확인”

“전북 지역 기독교인 104명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는 1950년 한국전쟁을 전후해 종교인 약 1천 700명이 학살된 사실을 처음 확인했다고 최근 밝혔다. 진실화해위는 전날 열린 제76차 위원회에서 북한군과 좌익 세력 등 적대세력에 의해 희생된 종교인 1천 700명 중 전북 지역 기독교인을 중심으로 진실규명을 결정했다.

진실화해위는 이번 진실규명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발생한 한국전쟁 시기 적대세력에 의한 종교인 희생 사건을 종교별 지역별로 나눠 순차적으로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진실화해위는 종교별 교단과 교회 등

을 통해 1,700명의 종교인 희생자 명단을 파악하고, '6·25사변 피살자 명부' 등의 공식 자료와 교회와 교단 등의 역사 기록을 추가로 수집해 희생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 가운데 이번 조사에선 1950년 7~11월 전북 군산·김제·정읍 등 8개 지역의 24개 교회에서 104명이 살해된 사실이 파악됐다.

전북지역 기독교인 희생 사건은 1950년 7월부터 11월까지 4개월에 걸쳐 발생했다. 특히 인민군 퇴각기인 1950년 9월 28일 무렵에 전체 진실규명대상자 104명의 57.7%인 60명이 희생됐다.

희생자 중 남성이 76.9%(80명)로 가장 많았고, 연령은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



한국전쟁 전후 집단학살이 발생한 두암교회를 방문한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 ©진실화해위

하게 분포하고 있었으며, 이 중 40대 희생자가 26%(27명)로 가장 많았다. 교회 직급으로는 교인이 54명(51.9%)으로 과반수 이상이었으며, 집사 23명, 장로 15명, 목사와 전도사 각 6명이었다.

희생자 중에는 대한민국 1호 변호사

홍재기, 제헌국회의원 백형남·윤석구 등 지역 내 주요인사와 김성환·김중환·김주현·안덕운·이재규·임종현 목사와 전도사 등이 포함돼 있었다.

전북지역 희생자 104명 중 가장 많은 희생자가 확인된 지역은 군산으로 희생자의 26.9%(28명)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김제(23명), 정읍(17명) 등에서 희생자가 확인됐다.

군산지역에서는 신관교회, 원당교회, 해성교회에서 희생자 28명이 확인됐다. 이들은 옥구군 미면 도굴 3곳에서 인민군 후퇴시기(1950년 9월 27일-28일)에 집단 희생됐다.

김제지역에서는 희생자가 23명이 확인됐다. 희생자가 가장 많은 곳은 만경교회는 인민군 후퇴기에 만경부주소 무물

과 전주형무소에서 이 교회 교인 9명이 희생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외에도 광활교회, 대창교회, 대송교회 교인 다수가 희생됐다.

정읍지역은 두암교회, 정읍제일교회, 매계교회에서 희생자 17명이 확인됐고, 특히 두암교회 희생자들은 빨치산에게 우익인사의 가족과 같은 교회 교인이라는 이유로 집단적으로 희생됐다고 한다.

진실화해위는 빨치산은 교회와 교인 집을 방화하고 불길에서 빠져나오는 사람을 죽창 등으로 찔러 아이부터 노인까지 20여 명을 살해했다고 분석했다.

이외에도 완주지역은 교회 5곳에서 9명의 희생자, 고창지역은 덕암교회와 고창읍교회 2곳에서 12명의 희생자, 익산지역은 황등교회, 신황등교회, 대장교회, 동련

교회, 무형교회에서 12명의 희생자, 전주 중앙교회에서 2명, 임실 관촌장로교회에서 1명의 기독교인 희생자가 확인됐다.

진실화해위는 “이들이 희생된 원인은 적대세력이 기독교인의 우익활동, 월남 기독교인 등의 이유로 기독교를 좌익에 비협조적인 세력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또한 예배당 사용 문제를 놓고 기독교와 인민위원회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기독교가 미국 선교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친미 세력’으로 여겨져 많은 기독교인들이 희생됐다”고 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에 대해 북한 정권의 사과 촉구, 희생자와 유가족에 대한 공식 사과, 피해회복과 추모사업 지원 등 후속조치, 평화·인권 교육 강화 등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노형구 기자

“김정은이 두려워 하는 건 체제 붕괴… 北 위해 끝까지 기도해야”

강동완 교수,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를 위한 철야기도회서 강연

강동완 교수(동아대학교)가 최근 에스더기도운동(대표 이용희 교수)이 주최하는 ‘북한 지하교회와 성도를 위한 철야’에서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장서기 39:20-23)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강 교수는 “4월 15일은 북한에서는 태양절이다. 싱그러움 봄날의 햇살을 우리는 만끽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놀라운 천지를 바라보는 그런 4월의 봄날이다. 그러나 북한은 4월 15일을 그렇게 보내지 않는다. 태양절이 되면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김일성의 동상 앞에서 절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그게 바로 북한의 오늘이다. 태양절은 죽은 사람이 영원히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런 날이다. 그런 날에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하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며 “김정은은 과연 무엇을 가장 두려워할까? 자신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다. 김정은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신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체제를 굳건히 쌓아서 영원토록 지배하는 것을 가장 좋아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그 반대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제가 2009년 교회 수련회를 갔을 때 탈북민들과 함께 가게 되었다. 거기서 탈북민 청년이 저에게 자기가 북한에 있을 때 ‘천국의 계단’이라는 드라마가 유행했다는 말을 했으며 그 청년 외에도 탈북민들은 남한의 드라마 몇 편을 봤

는 증언을 해줬다. 이 증언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저는 이와 관련해 책을 집필했다. 그리고 2013년-2014년 사이 중국에 가서 북한 주민들을 만났으며 그들의 증언을 듣고 책을 집필했다. 그러자 그들의 증언이 책을 통해 조금씩 인정받기 시작했다”며 “천국의 계단, 사랑의 불시착 등 한류 드라마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 물레 퍼지면서 북한에서는 변화가 일어났다. 한류 문화가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퍼지면서 우리는 북한 체제 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강 교수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한국 드라마가 퍼진 이유는 한국 드라마의 특성 때문이다. 그 특성은 가장 재밌을 때 끝나며 다음 편을 기대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제가 한류를 연구하면서 탈북민 그리고 중국에서 만났던 북한 주민들과 대화를 했을 때 그들이 봤던 한국 드라마와 관련해 대화했을 때 대화가 잘되었다. 이들은 드라마를 시청했을 때 보위부 감시의 눈을 피하면서 시청했으며 드라마를 보기 위해 드라마가 담긴 CD 등을 브로커, 밀수를 통해 건네받기도 했다”며 “사회주의 체제가 붕괴하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또는 먼저 나타났던 것은 체제를 지키는 핵심 간부들의 이탈이다. 간부들이 이탈하는 이유는 돈,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체제를 조금씩 버리는 것이다. 그 현상이 지금 북한에도 이제 나타나고 있

다”고 했다.

이어 “드라마뿐만 아니라 K-Pop, 우리나라 대중가요도 북한 체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김정은은 ‘노래 한 곡이 천만 톤의 식량보다 더 위대하고 위력하다. 폭탄보다 더 큰 힘이 음악’이라고 얘기했다. 이는 한국의 노래가 북한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라며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 한국의 대중가요 음악을 들으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북한에는 전기가 없다. 집마다 변압기를 통해 전기가 들어오지만 그렇지는 않다면 주민들은 자동차 배터리, 탱크 배터리, 변류계 또는 자가 발전발동기를 이용해 전기를 쓴다. 심지어는 전조등을 세워 직접 연결해서 쓰기도 한다. 이렇게 한국의 드라마, 대중가요 문화를 접할 수 있지만, 단속도 그만큼 심해지게 된다”고 했다.

강 교수는 “한국 드라마를 보면 흔히 나오는 장면이 흰 밥에 여러 반찬을 놓고 식사하는 장면, 서울을 배경으로 출근하는 장면 등 우리에게 일상이 되는 것이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기가 천국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어 실제로 제가 들어본 증언도 그러했다. 제가 들은 또 다른 증언은 ‘전국 노래자랑을 봤는데 거기서 손을 잡고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게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가 흔히 미디어를 통해 접할 수 있는 장면들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누리는 일상을 북한 주민들은 부러워하고 그런 일상을 살아가길 소망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보위부, 단속 기관 등에 의해 한류 문화를 접한 북한 주민들은 법적 처벌을 받게 되어있다. 이와 관련해 저는 북한 내부 문건을 입수하여 보게 되었는데 ‘대표적이고 색채적이며 추잡한 내용이다. 이런 거를 유포한 경우 2년 이하의 노동 단련, 5년 이하의 노동 교화에 처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은 달라졌다. 북한에서는 한류 3대 악법을 만들었는데 지난 2020년 ‘반동사상문화배격법’, 2021년 ‘청년교양보장법’ 그리고 2022년 ‘평양문화어보호법’을 만들었다. 이 세 가지 법들은 북한의 다음세대들의 사상오염을 막기 위한 통제와 감시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에 의하면 ‘남조선영화나 녹화물, 편집물, 도서를 유입, 유포한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무기 노동교화형 또는 사형에 처하며 집단적으로 그것을 시청, 열람하도록 조장하였거나 조장한 경우에는 사형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이처럼 이전과는 다르게 북한에서 한류 문화를 접하면 엄청난 처벌이 가해질 수 있는 것이다. 지난 1월 영국 BBC에서 속보로 낸 기사 중 ‘평양대중학교 3학년 학생 두 명이 한국 드라마 시청 및 유포를 한 이유로 12년 노동교화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이 있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으며 이는 바로 한류 문화가 김정은의 체제를 흔들 수 있는 근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동아대 강동완 교수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에스더기도운동

그는 “김정은은 자기의 체제가 전복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체제를 위협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은 장마당 세대의 사상 변질이며 사상 변질을 일으키는 중요한 동력은 바로 외부 정보이다. 이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매일같이 몸이 으스러지도록 80일 기도하고 또 100일 기도하고 늘 이 자리에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북한 체제 변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우리는 저 북한 땅이 변화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믿지만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다 보면 지치게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에게 ‘우리가 이 기도를 언제까지 계속해야 할까.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정말 저 북한 주민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했다.

강 교수는 “세상 사람들은 그 의문을 행동으로 옮긴다. 우리가 잘 아는 일부 정치 세력들은 통일은 이제 불가능하므로 김정은과 좋은 이웃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평화적으로 공존하다 보면 통일은 언젠가는 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불가능한 통일을 얘기하지 말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세력들

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게 지금의 현실이다”며 “지금도 북한에선 변화하고 있다. 바로 외부 정보를 통해서 문화가 북한 주민들의 의식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김정은은 올해 연초에 ‘한국을 더 이상 민족이나 동포로 생각하지 마라’고 말했다. 한류 문화로 인해 김정은의 체제가 위협을 받으니 그의 전략이 바뀌었으며 그는 남한을 통일 대상이 아닌 쓸어버려야 되는 대상으로 보게 되었다. 남한이 아닌 북한 체제를 유지해 가는 것이 김정은의 지금 전략이 되어 버렸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오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의 몸이 으스러지도록 매일 밤 피수꾼 같이 이 자리를 지키고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지 않는다. 그런데도 우리는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밤에도 눈물 흘리고 살려 달라고 절규하는 저들의 삶을 아시기에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시킬 바라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바란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전세계 럭셔리 휴양 컬렉션

오직, 반얀트리 해운대 부산 아너스 회원에게만

휩날리는 바람과 수많은 별이 수놓는 대자연의 압도감, 당신에게만 허락된 그곳에서 가장 경이로운 휴양을 선사합니다.

BANYAN TREE
HAERUNDAE BUSAN

반얀트리 사우디아라비아 알올라

Sanctuary for the senses
BANYAN TREE
HAERUNDAE BUSAN

| 아너스 회원 글로벌 혜택 |

아너스 회원이 되어 전 세계 32개국 109개 호텔&리조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휴양 컬렉션을 누리십시오.

아너스 회원 모집 중 **1899.3318**

※ 본 홍보물에 사용된 CG 및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제 죽은 후에 영혼은 어떤 상태로 돌아가는가?”

김선권 교수, 최근 온신학TV서 ‘칼뱅이 말하는 죽음 후의 상태’에 대해 강연

김선권 교수(장신대 사진)가 최근 유튜브 채널 온신학TV에서 ‘칼뱅이 말하는 죽음 후의 상태’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에 의존해 있기에 이교도의 주장과는 확실히 차이가 있음을 천명한다”며 “철학에서 영혼불멸론은 영혼의 신체를 전제한다. 즉, 영혼이 이 땅에 오기 전부터 먼저 존재했다는 것이다. 또한 죽은 후에도 영혼이 마지막 육체의 부활 없이 단지 영혼만 그 자체로 불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칼뱅은 영혼이 죽은 후에 멸절되지 않고 불멸하지만 궁극적으로 몸의 부활과 함께 몸도 그 부활에 참여함을 주장함으로써 철학자들과의 의견의 차이를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칼뱅은 성경에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주석에서 이것은 ‘죽어 있는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지금 누리는 교제를 지키고 지속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며 ‘왜냐하면 신앙에 의해서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진 자들은 그와 함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은 또

한 그와 함께 생명의 교제를 갖기 위해서’다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죽, 죽음이 오기 전에 신자가 그리스도와 교제를 나누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죽은 후에도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며 “죽음 후와 관련하여 칼뱅은 그리스도와의 교제, 연합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따라서 중간 상태에서 신자가 죽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중간 상태에서 영혼은 지복의 상태로 있는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까지 잠정적인 것으로서 지복의 상태를 누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혼은 잠든 완전한 몸의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라며 “칼뱅은 ‘재세례’와 ‘논박’에서 ‘신실한 영혼들은 죽음 후에 즉시 그들에게 약속된 유산을 어느 정도 향유하게 된다. 하지만 그들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아직 나

타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의 도성이 아직 그것의 위상 가운데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들이 이것이 행해지는 날이 오기를 기다린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칼뱅의 이 중간 상태의 핵심은 지복의 상태로 들어가지만 그것은 잠정적이고 몸의 부활을 기다리며 주님의 재림과 함께 오기를 고대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성도는 점차 어떻게 부활할 것인가”라며 “칼뱅은 부활의 방식에 대해 두 가지를 구별한다. 바로 인간의 몸에 그 본체와 성질을 구별한다”며 “몸의 본체는 지금 가지고 있는 동일한 몸으로서 부활하지만 성질은 달라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부활의 몸이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썩어질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둔다’라는 성경 말씀을 따른다”며 “성질은 어떤 면에서 달라지는가 하면 죽을 몸에서 이제 죽지 않을 몸이 될 것이고, 병들 몸에서 아프지 않을 몸

으로, 죄를 짓는 몸에서 죄를 짓지 않을 몸으로, 약한 몸에서 강한 몸으로 성질의 변화를 겪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활한 몸으로 살아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라며 “칼뱅은 부활한 몸의 상태 즉, 신령한 몸의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 지복과 영광이라는 개념을 구별한다. 지복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진다”고 말하며, 지극히 복된 상태로써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모두가 동등하게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것이다. 왜냐하면 지복의 유일한 조건은 우리의 행위가 아닌 양자의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근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부활의 몸의 상태와 관계에서 지복은 동일하지만 영광은 서로 다르다”고 말하며 “칼뱅은 주장한다”며 “칼뱅은 예배소에서 각 성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데, 그들의 정도와 분량에 따라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도는 부활 후에 각자의 영예와 영광을 가질 것이라고 말한다. 즉, 천국에서 영광의 다양한 정도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영광의 다양성은 성도의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진다. 보상은 성도의 업적이나 공로가 되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은혜의 결과”라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성도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형태로 변화한다고 하면 우리는 정말 완전한 그리스도처럼 되는 것인가”라며 “칼뱅에 따르면 부활 후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모습을 갖췄지만 그리스도와 완전히 동일한 모습이 된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 신성화가 부정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부활 이후 그리스도와 성도 사이에는 여전히 어떤 구별이 존재한다고 칼뱅은 주장한다”며 “칼뱅은 피조물과 인간의 구별이 남아 있는 것이다. 죽음 후에 영혼은 즉시 주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고대한다. 몸의 부활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리고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올 때 몸이 부활하여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고 했다. 장요한 기자

“큰 영향력 발휘하는 기독 명문사학 성장”

한남대학교 개교 68주년 기념행사가 1부는 ‘열매를 많이 맺나’라는 제목으로 대전제일교회 김철민 목사가 설교를 했으며 개교 68주년 감사예배로 진행되었다.

이러진 2부 개교 기념행사에서도 이승철 총장이 교직원 장기근속상, 연구업적 우수교원상, 업적우수교원 총장특별포상, 우수조교 총장특별포상 표창, 업무유공상 및 모범직원상 표창, 우수직원 총장특별포상 표창 등을 수여했다. 또 미전장 학회에서 재학생 10명에게 미전장학금을 수여했으며, 총장특별장학금도 수여했다. 올해는 이승철 총장이 구성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탁한 2억원의 발전기금을 활용한 총장특별포상도 진행됐다.

또 3부 행사로 개교 68주년 기념식수가 내외빈이 참석한 가운데 사범대학 잔디밭에서 열렸다.

이승철 총장은 “지난 68년간 진리자 유·봉사를 기반으로 수많은 도전과 시련을 이겨내며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명문 기독교 사학



개교68주년을 기념해 사범대 잔디밭에서 기념식수를 하고 있다. ©한남대

로 성장해왔다”며, 이러한 결실로 “2024 한국 대표 K-스타트업 밸리로의 대전환을 위한 글로컬대학30 예비지정대학으로 선정된 것을 위한 도전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나라 기자

감신대, 동문회장 초청 간담회 ‘WE ARE ONE’ 행사 진행

유경동 총장, ‘형제의 사랑’ 주제로 설교

감신대학교(총장 유경동) 각 학년 동문회장 초청 간담회 ‘WE ARE ONE’ 행사가 최근 신석구목사기념관 지하 교직원 식당에서 진행되었다. 이날 행사는 예배로 시작되었고, 대외협력실장인 오광석 교수가 사회로, 비서실장인 박성호 교수가 ‘교제의 시간을 통해 대화와 만남이 하나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했다.

이어서 ‘형제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유경동 총장은 “미래는 오래된 과거이다”는 격언을 인용해 “감리교신학대학교 동문이 종교적 DNA를 형성한 과거가 미래를 결정한다”며 “각 학년 동문회장들을 모아 새로운 비전을 고민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유 총장은 “성경에서는 성전에 올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형제로 연합하여 함께 동거한다는 가르침이 있다. 히브리어의 원어로 ‘동거한다’는 말은 ‘하나가 된



간담회 ‘WE ARE ONE’ 기념 사진. ©감신대

다’는 또 다른 뜻을 가지고 있듯, 우리 감신 동문은 모두 형제자매로 하나가 되어 있으며 이는 학교에 대한 공감과 애정을 더욱 깊게 느끼게 한다”며 “작은 이슬방울이 큰 바다가 되듯, 감신대가 목말라하는 시대에 갈증을 해소하는, 아름가운데 사회를 이끄는 빛이 되는 감신대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예배는 72학번 동문회장인 유준호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되었다.

예배 이후, 학교중장기발전계획 위원장인 임진수 교수(대학원장)가 새로운 4년에 대한 학교의 비전과 특성화 비전을 소개했다. ‘함께 모든 선한 것으로 가르치

고 배우고 실천하자’는 특성화 사명 선언을 기반으로 감신대의 비전, 인재상, 3대 핵심비전과 특성화 전략을 설명했다. 행사는 각 학년 동문회장들의 인사와 소개, 교수와의 질의 응답 시간으로 마무리되었다.

한편, 유 총장은 이어서 모교에 교회 현장 목회자들과의 협력의 중요하며, 학년 동문회장과 간담회를 통해 모교 감신대와 동문 목회자들의 유대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동문회와 학교가 더욱 긴밀하게 교류하며 학교의 비전과 계획을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자리로 이어지기를 소망했다. 장요한 기자

가정협, 26일 서울복음교회서 제69회 가정주일 연합예배 개최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의회(이하 가정협)는 26일 오후 2시에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서울복음교회에서 ‘믿음의 가정의 새로고침(F5)’이라는 주제로 제69회 가정주일 연합예배를 연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와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번 연합예배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정생활 신앙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총회장이자 NCCK 회장인 윤창섭 목사가 설교를 맡아 연합예배가 진행된다.

또 이를 계기로 매년 가정 주관을 선포하고 가정 주일 연합예배와 가정평화상 시상식을 진행해왔다. 특히 가정평화상(NCCK)과 공동으로 주관한다.

이런 연합예배는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가정생활 신앙 운동을 확산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에 통합적 가정 사역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왔다. 예배, 교육, 교제, 나눔, 영성 등 다섯 영역을 선정하고 이를 통해 가정사역의 통합적인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다.

가정의 달인 5월 동안 가족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한 기도문이 제작돼 배포될 예정이다. 문익는 가정협 김창현 목사(02-763-8728, 010-3462-2393)에 하면 된다. 노형구 기자

레티놀 4X로, 단 7일만에
속부터 짝 차오르는 밀도탄력

아이오펜 레티놀 슈퍼 바운스 세럼

7일 만에 속부터 차올라
4주 후 어려운 피부 나이

10.6%
볼 탄력 개선

12.5%
모공부위 피부탄력

12.2%
피부 탄력층 개선

RETINOL SUPER BOUNCE SERUM
RETINOL 4X
IOPE

오늘부터 7일 후, 달라지는 피부 변화를 경험하세요!

IOPE

구매 문의 | 080-023-5454, 카카오톡 '아이오펜' 채널 문의 | 전국 라미네이션 및 울라보팅 매장
|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318 (S&B 121) 2023.01.25-2023.03.31 (수요일) 09:00-18:00 (사전예약) (예약료별) (예약료별) (예약료별)

“예수님의 복음의 역설, 권리 주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춘성 목사, 복음과도시 홈페이지에 글 게재

이춘성 목사(분당우리교회 협동목사, 한국기독교윤리연구원 사무국장)가 최근 복음과도시 홈페이지에 ‘그리스도인에게 권리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지난 3월 4일, 프랑스 의회는 여성의 낙태권을 헌법에 담은 헌법 수정안을 의결하였다. 프랑스 국민의 85퍼센트가 이를 찬성하였고, 우파의 지도



자조차도 반대하지 않았다”며 “낙태권을 명시한 수정 헌법의 전문은 간단하다.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률로 정한다(프랑스 헌법 34조). 이는 낙태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비록 그 조건을 하위 법률로 정한다고 하지만, 이는 낙태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는 범위에서만 가능한, 명실상부한 낙태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프랑스가 낙태를 권리로 정하게

된 것은 현대인의 권리에 대한 압박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며 “그 이유는 현대인이 자신이 가진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보장받아야 하는 극도의 개인주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전체주의의 지배 아래에서 개인의 철저한 과잉이라는 양자 세계대전을 경험한 서양 사람들에게는 개인의 권리는 일종의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서 자신을 지키는 것에서 더 나아가 사회를 보호하는 윤리적 가치로 승화되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개인주의의 시작이 아무리 정

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재 개인주의는 일종의 개인과 개인, 권리와 권리의 투쟁이 되어 버렸다”며 “그 중간 지대로, 대화와 타협, 보류 등과 같은 애석한 영역과 지루한 시간을 남겨두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지체하면, 자신이 손에 붙 것이고, 현대인에게 손해란 자신이 부정당하는 살인(인격 살인)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이렇듯 권리 충돌의 시대를 살고 있다. 대화보다는 권리로 자신의 영역을 표시하는 영역 표시의 동물적인 세상이 되어 가는 것”이라며 “권리는 확

대되고 있지만, 권리의 의미와 명에는 그 어느 때보다 가볍다”고 했다. 이어 “프랑스 의회의 낙태권 수정 헌법 통과를 반대한 프랑스 상원 의장인 제라르 라르세는 프랑스의 헌법이 ‘사회권의 카탈로그’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며 “헌법은 개인의 권리를 전시하고 항목을 선전하는 카탈로그라는 것이다. 이렇듯 권리의 전시장이 되어 버린 현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권리를 주장해야 할까? 우리가 주장하는 권리는 과연 세상에 복음을 변증할 수 있을까”라고 했다. 김 목사는 “권리의 전쟁터에 잠정해서

조금이라도 더 많은 땅을 얻고 싶다”며 “그러나 이렇게 얻은 권리가 그리스도의 나라를 조금이라도 더 넓힐 수 있다고 확신하는지 누군가 묻는다면, 난 할 말이 없다.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사람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성육신의 원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권리를 포기하고, 누군가의 권리 아래 폭력에 희생당할 때, 그래서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보여주신 복음의 역설”이라고 했다. 장요한 기자

새에덴교회·칼빈대학교, ‘전도사 인턴십 과정’ 개설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가 용인 칼빈대학교(총장 황건영 박사)와 함께 ‘전도사 인턴십 과정’을 개설했다. 이는 최근 용인 새에덴교회 당회실에서 체결된 ‘전도사 인턴십 과정’ 개설을 위한 협약 협약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됐다. 새에덴교회와 칼빈대학교는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과 학문적 연구를 교류하고, 인턴십 참여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과 지원을 제공하며 상호 협력하기로 합

의했다. 새에덴교회는 방학 기간 동안 칼빈대학교에서 선발한 인턴십 학생들에게 목회 현장 및 이론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인턴십은 학부(3학년)와 신대원(1학년) 학생 각각 15명으로 구성되어 총 30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번 인턴십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전도 현장에서의 경험을 쌓고, 새에덴교회 목회 시스템을 실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세신자 정착을 위한 목회

로드맵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경험과 학습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협약은 3년간 유효하며, 만기일 2개월 전 종료 의사를 통지하지 않는 한 자동 갱신될 예정이다. 새에덴교회는 인턴십 학생들에게 장학금 지원도 검토 중에 있다. 소강석 목사는 “현재 목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창의적인 사역자들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며

“인턴십을 통해 학생들에게 새로운 영역과 경험을 제공하고, 그들의 목회 방향을 도와 나가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황건영 총장은 “새에덴교회의 목회 시스템과 소 목사님의 경험은 우리가 추구하는 인턴십 프로그램과 잘 부합한다”고 전했다. 두 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되는 이번 인턴십은 학생들에게 목회 현장에서의 경험과 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사역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형구 기자



협약을 마친 후 기념촬영. ©새에덴교회

안양열린교회, 부활절 맞아 목회자 가정 장애아동에 기부

말알복지재단 경기지부(경인본부장 오세욱)가 안양열린교회(담임 목사 김성진)로부터 부활절 이웃사랑 현금 1500만 원을 기부받았다고 최근 밝혔다. 기부금은 안양열린교회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30일까지 40일 간 진행된 특별새벽기도회(주 바라봄 기도회)의 열매로 마련되었다. 안양열린교회는 사순절 특별새벽기도 기간을 맞이하여 40일간의 마가복음 강해설교를 통해 주신 은혜가 우리 결의 소외 이웃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는 마음을 품게 됐다고 한다. 기부금은 안양열린교회의 뜻에 따라 장애아동을 키우는 목회자 가정에 전달돼 재활치료비, 약품비 등 의료비로 쓰일 예정이다. 안양열린교회 김성진 담임목사는 “특별새벽기도를 통해 성도님들이 보낸 헌금이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전달되어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고, 그들은



말알복지재단 경기지부가 안양열린교회로부터 부활절 이웃사랑 현금 1500만 원을 기부받았다. ©말알복지재단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길 소망한다”고 했다. 말알복지재단 오세욱 경인본부장은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는 부활절을 맞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헌신과 사랑을 이웃들에게 나누며 실천한 안양열린교회에 감사드리며, 전달된 기부금으로 많은 장애아동들이 치료를 받아 건강해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美기독교기업 칩필레, 2시간 만에 200만끼 구호 식량 지원

이번 달, 미국의 기독교 기업인 칩필레(Chick-fil-A)의 가맹점 점주 및 직원들이 연례 회의 기간 동안 2백만 끼의 무료 식사를 단 2시간 만에 포장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차킨 패스트푸드 체인인 칩필레는 2월 5일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연례 회의에서 신앙 기반 재난 구호 자선 단체인 ‘유에스헝거(U.S. Hunger)와 컨보이오브호프(Convoy of Hope)와 협력해 200만 개의 렌틸콩 잡발라야 식사를 포장했다. 컨보이오브호프 공식 대변인 이단 포헤츠(Ethan Forhett)는 “우리는 봉사하기 위해 여기에 있다는 칩필레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며 “칩필레와 같은 기업이 굶주리고 가난한 이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는 것은 고무적이며, 그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영광이다”라고 전했다. 컨보이오브호프와 칩필레에 따르면, 100만 끼의 식사는 재난 생존자들의 영양 공급을 위해 전달되며, 나머지 100만 끼는 미국 전역의 도시와 시골 지역에 분배될 예정이다. 컨보이오브호프 기업 관계 수석 이사인 다니엘 번스(Daniel Burns)는 “기아와



칩필레(Chick-fil-A) 로고가 그려진 푸드트럭 주위로 사람들이 줄을 서있다. ©칩필레

식량 불안은 미국과 그 외 지역에서 심각한 문제”라며 “칩필레가 그들이 속한 지역 사회 전반에서 다른 이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데 대해 박수를 보낸다”고 말했다. 미국 농무부(USDA) 경제 연구 서비스에 따르면, 미국 내에서 저소득층 지역은 식료품점이나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없어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유에스헝거의 사장 겸 CEO인 릭 휘터드(Rick Whitted)는 “우리는 칩필레와 오

K패스-경기

전국 모든 대중교통 다! 경기도민이라 혜택도 더!

다되고 더된다

지원범위 전국 모든 대중교통
* 다만, 시외(고속)버스, KTX, SRT 등 별도 발권 받아 탑승하는 교통수단은 제외

지원내용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 이용 시 상한 없이 교통비 실사용액의 일정 비율 환급
- 19~39세 청년: 매달 교통비의 30% 환급
- 40세 이상: 매달 교통비의 20% 환급
- 취약계층(7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은 교통비의 최대 53% 환급
* 6~18세 도민은 연24만원까지 지원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참고)

신청방법 K-패스 또는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K-패스(www.korea-pass.kr),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 2024년 5월 1일부터 사업시행

관련문의 경기도 콜센터 031-120

5월부터

The 경기패스

“AI 시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물질과 쾌락 아닌, 한 생명 향한 관심”

레위기의 제사법에 대한 말씀을, 크리스천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지난 주일 4월 14일 나성영락교회 본당에서 드려진 주일예배에서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는 “생명을 다하는 정결”(레위기 12장 6-8절)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제사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하며,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나누었다.

박 목사는 캄보디아에서 40여년 전 난민으로 미국에 망명과 캘리포니아 실 비치에서 30년 동안 도넛 가게 ‘도넛 시티’를 운영했던 존찬이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의 사연을 통해, 크리스천의 삶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설교를 시작했다.

“존찬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아내 스텔라와 함께 캘리포니아 실 비치(Seal Beach)에서 30년 넘게 도넛 시티를 운영하고 있었다. 어느날 아내가 뇌동맥류로 계산대 앞에 있다가 갑자기 쓰러졌다. 감사하게도 조금 나아져서 재활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동네 사람들은 우리가 도넛을 빨리 사버리면 남편 존이 이제 집에 가서 아내를 돌보고 아내와 시간을 가질 수 있겠다 생각하고 4시 반에 문을 열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와 가지고 도넛을 사갔다. 보통 새벽 2시에 출근해서 오후 3시에 문을 닫았었는데 8시 반쯤에

도넛이 다 팔려 닫을 수 있게 되었다.”

“한 5년 전에 실제로 있었던, 작은 도시, 작은 가게, 작은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짧은 이야기인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살려고 노력한다면, 하나님 아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하게 한다.”

그는 오늘의 시대를 진단하며, 사람들이 시대 정신이 없다고 한다며, “단 한 가지 명확한 것이라면, 시대 정신은 없지만 자기 물질 자기 쾌락을 추구하는 이기주의는 있다고 말한다. 이기주의가 시대 정신이 된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자기 만족과 이기주의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기주의만 남은 시대가 되었다. 자기 이익과 행복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술과 정보가 가속되고 활성화된다. AI 인공지능, 또 로봇 기술, 미디어, 가상 현실, 이런 것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위한 도구가 되고 있다.테레사 수녀가 생전에 한 말 가운데 ‘미국엔 기근이 있는데 음식의 기근이 아니라, 사랑의 기근, 돌봄의 기근, 진리의 기근, 그리고 생명의 기근이 있다’는 말이 있다. 아무리 풍족하고 부유해도 우리를 살게 하고, 나를 살게 하는 것은 물질이 아니다.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은 물질과 쾌락이 아니다. 한 생명에



나성영락교회 박은성 목사 ©youngnak.com

“12장에 이어지는 두 번째 정결에 대한 말씀은 산모, 막 출산한 여인에 대한 말씀이다. 12장 말씀은 새로운 생명과 그 생명을 낳은 여인, 그들이 속한 그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잘 보면 이 말씀은 산모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다. 공동체 모두가 이것을 알고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생명을 살기를 원한다. 생명을 살아가길 찾는다는. 아기가 태어나면 어머니의 젖을 찾듯 영적인 생명도 그렇다. 저는 나성영락교회가 영적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한다. 우리에게 왔는데 ‘내가 이따금 죽겠다, 메말라진다’면 나성영락은 하나님의 신앙의 공동체의 본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 교회에 들어온 생명이, ‘아, 살만하다. 내 영이 이곳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산모가 아들을 낳을 때와 딸을 낳을 때 격리 기간이 다르다. 정결하게 하는 시간이 서로 다르다. 낳아는 40일 여자는 두 배인 80일의 정결 기간을 갖게 하신다. 첫 번째 성경적인 이유는 하와가 아담 먼저 범죄하고 그를 범죄로 이끄는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성의 정결 시간이 더 길었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그런데 더 분명한 것은 그 당시에 한번 사회를 생각해 보면 남야선호사상이 너무나 강했기 때문에 아들이 태어나면 환영할 만한 일이었던 반면 딸이 태어나면 오히려 환영받지 못하고 산모는 그 시간을 견뎌야 했다. 외롭고 괴로운 시간이었기에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것이다.”

“말씀 안에는 생명과 공동체를 생각하신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이 담겨 있다. 철저하게 생명을 낳은 그 산모를 생각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끝까지 않는다. 이 격리 기간을 지나면 산모는 변제와 속죄제를 드렸다.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고 변제는 헌신의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다. 산모가 변제를 먼저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헌신’의 의미를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나병에 관한 규례를 통해 죄로부터 회복에는 오랜 회개와 죄사함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병에 걸리면 완전히 공동체로부터 격리된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그의 병을 진단할 때 관찰할 때 신중을 가하라고 하신다. 병이 치유되면 정결 예식을 다 하고 갖가지 제사를 다 드려야 공동체에 들어올 수 있었다. 기록함을 상실한 후에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오랜 회개와 죄사함의 기간이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셨다. 병에 걸리기는 쉬워도 온전히 회복되는 것은 참 힘든 일이다.”

“공동체로 이곳에 들어온 이들이라면 우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된다. 가난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사실 없어야 되고 영적으로 정체되거나 메마름을 감동하는 이들도 없어야 한다. 또 상처받고 떠나는 사람도 없어야 한다. 나성영락 교회가 그렇게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 주디 한 기자

대한 관심과 기대 그리고 사랑으로 돌보는 마음과 손길로 우리가 살아간다.”

“어린 왕자를 쓴 생텍쥐페리는 비행기 조종사였는데 난기류를 만나 사막에 불시착하게 된다. 며칠 후에 사막에서 발견돼 구조됐다. 기자가, ‘식량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데 사막에서 어떻게 살 수 있었습니까?’라고 물었는데, 그 답이 ‘저를 사막에서 버티게 해 준 것은, 사막에서 살 수 있게 해 준 것은 한 덩어리의 빵도, 한 모금의 물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무엇인가? 생명을 주시고 생명이 절대로 혼자 살아가지 않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원리이다. 그래서 그 생명이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는 공동체, 가정과 교회를 주신 것이다. 그 안에서 육적인 가족과 영적인 가족의 관심 속에서 사는 것이다. 서로를 돌보는 마음과 손길이 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닌가? 여러분 홀로 남겨져 있다면 신앙의 호흡을 할 수 있겠는가? 못 견디고 그 영이 죽게 된다. 그래서 공동체, 가정과 교회에는 생명에 대한 관심과 손길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우리가 이 공동체 안에서, 가정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이유는 아버지, 어머니의 섬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고 교회에서 내가 신앙의 생활 할 수 있다는 것은 누군가 나를 사랑으로 돌보고 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그는 이 생명에 대한 관심을 레위기의 정결법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설명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그 거룩함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있어야 한다. 하나는 제사법이고, 다른 하나는 정결법이다. 이 정결법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득 담겨 있다. 정결법, 첫 시작이 식생활에 대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길 원하는 백성이 아무거나 먹고 아무거나 마시고 아무거나 누리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먹어도 될 것과 먹지 못하는 것을 구별하여 주셨다.”

“왜 정결법을 주셔서 구별하게 하시느냐? 생명이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명이라고 하면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이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 생명과 육적 생명을 건강히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음식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당시 기후를 보면 도저히 음식을 오래 놔둘 수 없는 기후였다. 쉽게 부패한다. 돼지를 키워서 그 고기를 살균 없이 먹는다라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었다. 병균이 옮겨져서 전염이 되면 한 사람의 육적인 건강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족과 종족과 부족과 민족이 다 함께 무너질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활 환경이 더러운 짐승들, 그런 식물들, 그런 생물들의 섭취를 금하셨다. 한 사람이 무너지면 가정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지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 당시의 종교 풍습을 보면, 이방 민족들은 우상숭배를 했다. 우상에게 음식을 바치고 제사를 마치면 그것 함께 나누먹었다. 그것을 통해 그들의 교제가 일어났다. 우리가 누구랑 음식을 먹느냐가 아주 중요하다. 누구랑 식생활을 하느냐가 내 실제적인 생활을 결정한다. 누가 어울리느냐, 누구랑 한 식탁에서 음식을 나누는가가 삶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의 죄악된 문화, 타락한 그 생활을 차단하셨다.”

“그래서 먹을 음식을 정해 주신 것이다. 육적인 건강과 영적인 건강, 생명 유지를 위해서 가장 우선 식생활의 정결을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면 먹고 마시고 누리는 일에 항상 절제와 분별이 있어야 한다. 내가 음식을 먹고 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에 맞는 생활인가 점검해야 한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두번째 정결법, 산모 정결법에 대해 설명하며, 영적 생명을 살아가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얼바인온누리교회, 청소년을 위한 진학 전략 세미나

크리스찬 청소년들을 위한 진학 전략 세미나가 2024년 4월 27일(토요일) 오후 2시에 얼바인온누리교회 드림홀에서 열린다.

전 스탠포드 대학 입학처장, 현 시카고 대학 입학 사정위원회 어드바이저, 현 San Francisco The Harker 고등학교 수석 진학 카운슬러인 버리고 및 스탠포드, MIT 포함 수백명 합격 실적 보유인 마틴 월쉬(Martin Walsh)가 ‘합격 트렌드 분석’, ‘SAT/ACT 시험 준비 전략’, ‘키워드 분석’,



‘에세이’ 등에 대해 강의한다. 통역이 제공된다. 신청은 얼바인온누리교회 홈페이지(<https://irv.onnuri.or.kr/>)를 통해서 할 수 있다. 김민선 기자

오렌지카운티 제일 장로교회 부흥회 ‘찾아오시는 하나님’

오렌지카운티 제일 장로교회가 4월 26일(금) - 28일(주일)까지 김성국 목사 (퀸즈장로교회 담임, 현 KAPC 총회장)를 초청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부흥회를 개최한다.

2024 부흥회 일시: 4월 26일(금) - 28일(주일) 금-토: 저녁 7:30, 토 새벽 6시 주일 1부: 오전 7시 45분 / 2,3부 연합: 오전 9시 30분 김민선 기자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지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준법지원실 심의명 제24-082(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보험예외) 노란우산은 예금보험예외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장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가입자가 감득하고, 중소기업중앙회 운영에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정부 차고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해 매 결산 시 정부 차고에 필요한 공제금을 의무적으로 납입한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약관을 참조하십시오.

이정의 원로목사 “한 사람 사랑하는 것이 목회, ‘하나님 목회’ 하길”

18일 한국프레스센터서 미래목회포럼 제20-2차 포럼(조찬) 열려

47년간 목회 사역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일선에서 물러난 원로목사가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목회 현황과 극복해야 할 과제는 무엇일까? 또 은퇴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1991년부터 25년간 신촌성결교회에서 목회하며 교회를 성장시키고, 2016년 70세를 맞아 공식 은퇴한 이정의 신촌성결교회 원로목사가 18일 미래목회포럼(미목이) 주최한 포럼에서 은퇴 후 삶과 사역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전하고, 원로목사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에 대한 소회와 목회자의 슬기로움은 은퇴 준비에 대한 지혜를 나눴다.

이날 서울 중구 세종대로 한국프레스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미래목회포럼 제20-2차 포럼(조찬)에서 ‘한국교회의 나아갈 길, 원로의 지혜를 듣는다’라는 주제로 발제한 이목사는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 “아무래도 제가 은퇴세대로 내용 속에 은퇴자의 권위적인 안목이 들어있지 않을 거다”며 양해를 구했다.

◇원로목사의 눈으로 바라본 현재 한국교회 목회 상황은?

이정의 목사는 이날 “은퇴하고 객관적인 눈으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현직 목회자들이 모두 열정적으로 목회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 실제로 목회자들이 눈물겹도록 열심히 사역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며 예배와 프로그램, 목회의 다양성을 한국교회 목회의 큰 특징으로 꼽았다.

이목사는 “무엇보다 예배의 다양성이 눈에 띈다. 코로나 이후 침체한 분위기를 회복하기 위해 예배 형태가 다양화되었다는 것을 발견했다”며 “코로나가 준 또 하나의 장점이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어 “설교의 열정도 새롭게 발견한 모습이다. 특히 젊은 목회자들이 상당히 열정적으로 깊이 있게, 성경도 많이 묵상하여 전하는데, 저는 (그러한) 안목과 열정이 있었는가를 돌아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정의 목사는 또 “옛날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사되고 있다. 각종 자료가 충분하고 챗 GPT의 출현으로 목회자들 곁에 새롭고 세련된 비서를 둔 격이 되었다. 현대의 목회자들은 많은 자료를 마음껏 활용하는 참 행복한 시대에 목회하지 않나 실감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목회에 신개념이 도입되었다는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라며 “목회자의 이중적 개념이 자연스럽게 일반화되고 있고, 사회적 목회와 직능 목회, 다양

한 기능적 목회형태들이 등장하며 목회 형태가 변화하고 있다. 사회가 무섭게 변화하고, 그 변화에 적절하게 발맞추어 나가기 위해 현대 목회가 상당히 넓고, 다양하고, 열정적이고,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는 목회를 하고 있다는 점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원로목사의 눈으로 바라본 오늘의 목회에서 극복할 점들은?

이정의 목사는 “그렇다고 모든 것이 다 진지하고 긍정적인 순수한 목회는 아니라는 것도 눈에 보인다”라며 “제일 아쉽게 느끼는 것 중 하나가 ‘교회성장’이라는 용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도에 대한 소극적인 의식은 교회에서 전도프로그램의 약화를 가져왔고 전도를 부끄럽게 생각하는 환경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전도에 대한 사회 분위기도 위축되고 전도 분위기가 안 되는 것은 상당히 오류가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목회자들의 내면에 교회성장에 대한 욕구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라고 예리하게 지적했다. 이목사는 “이같은 (전도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지 못할 것”이라며 “교회성장의 추구는 성령의 역사이자 교회의 생명 요소로, 교회성장은 자리를 채우기 위한 수단이고 성령 사역의 본질이자 목회 사역의 뜨거운 초점”이라고 강조했다.

영성 시대에서 지성 시대로의 급격한 이동과 경쟁적인 목회 지향 방식도 지적했다. 이정의 목사는 “1세대 목회자는 정보에 어둡고 지식에 약점이 많지만, 기도와 열정과 헌신으로 교회성장을 이루었고 탄탄한 목회를 이루고 부흥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배턴을 이어받은 2세대 목회자들은 각종 정보와 자료 활용에 익숙하고 지식이 월등하며 대부분 학위를 소지하고 있는데 영성, 열정, 헌신적인 면에서 1세대들을 능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영성 목회에서 지식 목회로 전환했기 때문에 영적 권위는 1세대들에 비해 떨어지는 것 같다. 본질의 문제이기도 한 ‘하나님 목회’가 아닌 ‘내 목회’를 지향하고 있다”면서 “이와 함께 이웃 교회와 동기 교회와 지역의 큰 교회와의 경쟁 목회를 지향하고, 지나치게 홍보와 프로그램에 열중하고 부풀리는 목회, 교회 건축에 몰입하여 인위적으로 부흥을 추구하는 모습들도 하나님을 위한 목회야 아닌, 내 목회를 지향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맨 왼쪽부터 미목 중앙위원 김영복 목사, 대표 이동규 목사, 발제자 이정의 원로목사, 이사장 이상대 목사, 집행위원장 박재신 목사



이날 조찬포럼에 참석한 미목 임원과 회원들이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희희 기자

“은퇴 후 험과 자유함 있지만 처신에 대한 지혜 요구, 은퇴도 목회, 은퇴 전 4~5년 전이 ‘목회 황금기’ 되면 좋아”

또한 “목회가 본질의 궤도를 떠나게 되면 곧바로 갈등이 유발되고, 그 갈등으로 인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들이 발생된다”며 비본질적인 목회의 치명적인 오류로 성도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는데, 이에 대해 목회자들이 둔감한 점도 지적했다.

전문화된 목회 철학의 부족 문제도 지적했다. 이목사는 “철학도 없이 여전히 모든 분야를 터치하는 목회는 성공하지 못한다. 작지만 감정이 있고 전문적인 강소교회로의 특화된 목회철학이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이 결여돼 있다고도 했다. 이정의 목사는 “(성령에서) 간음하다 잡혀 온 여인을 바리새인은 죽이려 하고 예수님은 살리려 한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내면을 보고 속 모습을 끌어내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은퇴도 목회다”… 목회자의 은퇴 과정, 자연스럽게 진행되려면?

이목사는 근래 목회환경이 매우 열악해지면서 목회자들의 은퇴 환경도 더 열악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은퇴 1~2년을 앞두고 목회자들이 내몰리는 경우들이 흔히 나타나고 있다. 교회들은 원로에 대한 예우, 주거 문제, 후생 문제 등이 부담이 되기 때문일 것”이라며 “오늘 목회환경이 급격하게 새롭게 재편되는 이유 중 하나는 신세대 당원들의 출현으로, 그들의 합리적인 사고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결과도 있음을 인식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회자의 은퇴도 오래전부터 준비할수록 좋다고 말했다. 특히 “목회자들의 은퇴가 2~3년 남았을 시기가 ‘목회 마무리’의 마의 고개로, 그때 잘못하면 다 어그

리질 수 있다”며 “은퇴 마지막 날까지 목회하겠다는 생각은 자기를 위한 철학일 수는 있어도 교회를 위한 철학은 아니다. 교회로서는 목회자의 은퇴 시기가 다가오면 하루가 천 년 같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하기도 했다.

후임자 선정과 은퇴 후 대우에 대해서는 “은퇴가 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목사는 “은퇴자들이 법하기 쉬운 오류 중 하나는 후임자는 내가 선정하겠다는 고집이다. 또 이웃교회 목사님만큼만 대우해달라는 요청도 함구하면 좋겠다”라며 “이는 평생 쌓아온 목회자의 덕목과 인식을 단번에 허물어 버리는 조건들”으로, 두 문제는 교회에 맞는 것이 좋고, 할 수 있다면 측면에서 조인하는 입장에서 서 있어야 한다고 지혜를 전했다. 이목사는 “마지막 마지막 지점에 가까워지면 급피치를 올려 은퇴 시점에 이르러 내 목회 전 체에서 최절정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그러면 은퇴 시점에 레임덕이 발생되지 않고 은퇴 과정이 자연스럽게 만족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퇴 목회자가 준비해야 할 4가지

이정의 목사는 “은퇴를 잘 마쳐도 준비해야 할 몇 가지가 더 있다”며 “정서 공간, ‘만날 사람’, ‘아침을 먹고 갈 곳’, ‘매 주일 예배드릴 교회’를 언급했다.

이목사는 “첫 번째, 은퇴 후 나 혼자 머물고 생각할 정서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 그 공간은 자주 다닐 책방, 도서관, 각종 모임을 대화방 등으로,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또 “두 번째, 만날 사람들을 준비해야 한다. 은퇴한 후 어울릴 곳이 있어야 하고 대화를 나눌 친한 동료나 이웃이 있어

야 한다”라며 “은퇴하기 전부터 만날 사람들을 준비해야 하고, 또 은퇴 후 20년 동안 제일 좋은 동반자, 대화의 상대자는 배우자다. 지금부터 사모가 건강하도록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목사는 “세 번째, 아침을 먹으면 갈 곳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혼자 고고하게 목회한 분들이 의외로 어울릴 동료가 없고, 갈 곳이 없고, 할 일이 별로 없어 이 부분이 취약한 것은 큰 문제다. 또 지금부터 자급 확보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목사는 “네 번째, 매 주일 예배드릴 교회를 지정하는 일도 중요하다”라며 “본교회 출석은 고집하지 않는 것이 좋고, 옵션이다. 추천하는 것은 사는 곳과 가장 가까운 교회, 교파와 교회 크기를 불문하고 새벽기도 다스리게 가장 좋은 교회가 좋다”고 제안했다.

◇“한 영혼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부끄러워”

이목사는 이날 “결론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목회였는데, 정말 ‘하나님 목회’를 했느냐 하면 부끄러움이 있다”고 솔직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목사는 “은퇴 후에 아쉬움이 너무 많다. 너무 바쁘게 일했는데, 뭐 하나라고 바빠나고 하면 대답 거리가 없다. 중환자실에 가도 5분 살짝 기도해 주고 나왔다. 5분 있다가 나오지 말고 차분하게 20분 동안 (환자의) 그 손을 잡고 기도했다더라 어땠을까”라고 후회의 뜻을 내비쳤다. 또 “대부분 목사님이 임관예배할 때 시간에 딱 맞춰 가서 예배드리고 앉아서 얘기하고 30분 만에 돌아오는데, 담임목사님이 1시간 전에 가서 엽을 할 때 마지막 고인의 손이라도, 얼굴이라도 닦아주는 일을 하면 가족들은 그 담임목사님을 절대 잊을 수가 없다. 지금 생각하니 그게 목회였는데, 그게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이었는데 뭣가 그렇게 바빠서 (그렇게 하지 못했는지)”라고 한탄했다. 이목사는 “결론적으로 부끄러움이 있고 만족하지 못함이 있다. ‘하나님 목회’를 했느냐고 물으면, 저는 위선자이다. 사람들은 목회에서 승리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내면적으로 죄송하고 미안함이 있다”고 고백했다.

이날 포럼은 미목 중앙위원 김영복 목사(사랑과평화의교회)의 사회로 이사 설동주 목사(과천약수교회)의 개회기도, 대표 이동규 목사(청주순복음교회)의 인사말, 이정의 목사의 발제, 집행위원장 박재신 목사(은해성교회)의 논찬, 이사장 이상대 목사(서광교회)의 총평, 질의응답, 김영복 목사의 폐회기도, 신임 회원의 인사 등으로 진행됐다.

이동규 대표는 “한국교회 원로목사님들, 또 교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많이 감당하시고 일선에서 물러나신 원로목사님들은 교회의 자산일 뿐만 아니라 교계의 ‘자산’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래서 이 조찬포럼은 한 교회와 한 목회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계가 다 같이 귀 기울이고 마음 가운데 담아야 할 주제로, 우리 뿐 아니라 교계의 모든 목사님과 성도들에게도 새겨지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는다”라고 말했다.

박재신 목사는 논찬에서 “1세대 목사님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다음세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더욱 부흥시킬 것을 기대하면서 이정의 목사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한국교회가 되길 좋겠다”고 말했다.

이상대 목사는 총평에서 “저도 은퇴가 4~5년 남았는데 뜨끔뜨끔한 것이 많아서 새로워져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목사님의 말씀으로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면 좋겠다, 미목이 그것에 일조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신임 회원으로 남기곤 전주 순복음침사사랑교회 목사가 인사했다. 미목은 6월 24~26일에는 2024년 리더십 콘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희희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주

안전성과 경제성을 동시에
APRI400

미래의 에너지 솔루션
소형모듈원자로 (SMR)

탄소배출 제로
대용량 수소 생산

해외에서 입증된 기술력
원전수출 사업확대

**Energy Up,
Tomorrow**

탄소 배출 없는 청정 에너지로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미래를 그려갑니다

“매주 미사 참석 美가톨릭 신자, 낙태 합법화 찬성 비율 더 낮아”

미국 가톨릭 신자 대다수는 낙태가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의 경우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한 조사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미사에 참석하는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는 낙태 합법화에 대한 지지율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퓨리서치센터는 최근 “미국 가톨릭 신자에 관한 9가지 사실이라는 제목의 블로그를 공개했다. 2023년 3월 27일부터 4월 2일까지 실시된 연구를 바탕으로 한 목록에서 미국 거주 가톨릭 신자 중 61%가 낙태가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의 경우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응답을 한 미국 성인의 수(62%)보다 약간 낮은 비율이다.

낙태에 대한 지지는 조사 대상 가톨릭 성인 표본 내 하위 그룹마다 다르다. 히스패닉 가톨릭 신자(63%)는 백인 가톨릭 신자(59%)보다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의 경우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을 선호했다.

반면,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가톨릭 신자와 이보다 적게 미사에 참석하는 가톨릭 신자 사이에서는 낙태에 대한 지지율의 차이가 훨씬 더 컸다.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가톨릭 신자 중 34%만이 낙태가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편 미사에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참석하거나 전혀 참석하지 않는 가톨릭 신자 중 68%는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의 경우 합법적인 낙태를 지지했다.

샬롯 로지어 인스티튜트의 친생명 학자인 마이클 누는 설문조사를 언급하면서 “교회 출석은 교파보다 낙태에 대한 태도에 대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했다.

보수 평론가이자 전 밴더빌트 대학교 교수인 캐롤 스웨인은 보고서의 조사 결과에 대해 “프란치스코 교황과 캘리포니아주 낸시 펠로시 하원의원, 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과 같은 진보적인 가톨릭



©Pixabay

신자들은 모든 정통 기독교인들에게 제약을 불러일으켰다”라고 했다.

스웨인의 논평은 낙태가 신앙 가르침에 직접적으로 모순됨에도 불구하고 낙

태를 지지하는 자칭 가톨릭 신자라고 공언하는 펠로시 전 의장과 바이든 대통령이 이 많은 동료 가톨릭 신자들이 이 문제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있음을 암시했다고 CP는 전했다.

보고서는 매주 미사에 참석하는 미국 가톨릭 신자의 비율을 28%로 측정했으며, 미국 가톨릭 신자 중 10%는 한 달에 한 번 교회를 가고 나머지 62%는 1년에 몇 번 이하로 미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교회 교리서는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한 낙태는 도덕법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라며 “낙태는 중대한 범죄에 해

당한다”라고 했다.

퓨리서치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추가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파적 성향도 가톨릭 신자들의 낙태 지지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톨릭 공화당원의 43%는 모든 상황 또는 대부분의 상황에서 합법적인 낙태를 선호하는 반면, 가톨릭 민주당원은 78%였다.

낙태와 관련된 가톨릭교회 내 당파적 분열은 미국 대중 전체의 분열을 반영한다. 미국 성인 중 공화당원의 40%는 낙태가 모든 경우 또는 대부분의 경우에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민주당원의 84%가 같은 답을 했다. 이미경 기자

美교회서 수감자들 ‘두번째 기회’ 주는 취업박람회 열려

미국의 몇몇 교회가 실업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와 함께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비영리 단체인 베테 투게더(Better Together)는 제4회 전국 두번째 기회의 날(Nationwide Day of Second Chances)을 주최했다.

이 캠페인은 교회에서 열리는 취업 박람회를 주도하며 구직자와 잠재적 고용주를 위한 채용 관리자를 한자리에 모으는 계획이다. 웹사이트에는 플로리다, 캔터키,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12개 이상의 행사가 소개되어 있으며 ‘고용 장벽에 직면한 이들을 위한 두 번째 기회의 힘’이

라고 홍보하고 있다.

베테 투게더 메건 로즈 대표는 CP와의 인터뷰에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해결 불가능하다고 일축하는 지지부진한 사회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다. 나는 자라면서 위기에 처한 가족과 함께하는 지역 교회의 힘을 직접 목격했다”라며 “그리고 그들의 사랑과 지원 덕분에 우리 가족은 어려운 상황을 헤쳐 나갈 수 있었고 더 강하게 벗어날 수 있었다”라고 했다.

로즈 대표는 “교회가 취약한 어린이와 가족을 돌보고 격차를 막아야 한다고 믿는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매년 수천 명의 수감자들이 석방된다. 수감자들은 다양한 직업 분

야에서 취업 기회를 얻는 것이 어렵다고 느낀다.

로즈 대표는 “우리는 사람들을 치유하고 앞으로 나아가며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고용과 직업이 하는 중요한 역할을 알고 있다. 교회와 협력한 사람들의 미래에 초점을 맞춘 즐거운 두 번째 취업 박람회”라고 말했다.

로즈 대표는 “실업자들이 사랑받고 보살핌을 받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베테 투게더가 사명을 통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생각할 때 대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과 디모데전서 5장 8절이

생각난다”라며 “사람이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않고, 사람이 자기 가족을 부양하지 않으면 믿음을 부인한 것이라는 성경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고용은 더 높은 곳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

그녀는 “교회가 희망을 전하는 데 있어서 독특한 위치에 있다”라며 “이 계획은 실제로 상류로 이동하여 빈곤 속에서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교회가 희망의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 지역 교회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향한 교회의 사랑과 보살핌을 볼 수 있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미경 기자

美연준 베이지북 “경기 소폭 확장… 소비지출 약간 증가”

“10개 지역 경제성장 경험”…2월보고서 대비 2개 지역 증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자국 경제가 지난 2월 말 이후 전반적으로 소폭 확장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했다.

연준은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 경제 동향 의견을 취합해 17일(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인 3월 ‘베이지북’에서 “미국 전체 12개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담당 지역 가운데 10개 지역이 경미하거나 완만한(slight or modest) 경제 성장을 경험했고, 나머지 2개 지역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보고서에서 8개 지역에서 소폭 또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갔다고 진단한 것보다 2개 지역이 늘어난 것이다.

연준은 “(미국) 소비지출이 전반적으로 약간 증가했으나, 몇몇 지역에서 소비자들의 가격 민감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경기변동에 민감한 임의 소비재 지출이 약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차 구매량이 일부 지역에서 차량 재고량 개선과 할인 혜택 영향으로 증가했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여전히 부진했다”면서 “제조업 활동은 소폭 감소했는데 단 3개 지역에서는 성장이 보고됐다”고 전했다.

주택 건설과 판매와 관련해 주택 건설이 평균적으로 약간 증가한 가운데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판매는 강세

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면 비주거용 건설은 침체됐고, 상업 부동산 임대는 소폭 감소했다고 부연했다.

노동 시장에 대해서는 고용이 전반적으로 약간의 속도로 증가했는데 9개 지역에서는 매우 느리거나 완만한 증가를 보고했으며 나머지 3개 지역에서는 고용 변화가 없다고 평가했다. 다만 대부분 지역에서 노동 공급과 구직자의 질이 향상되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임금 인상은 8개 지역에서 적당한 속도로 증가했고, 나머지 4개 지역에서 미미하거나 완만했다고 평가했다.

가격 인상은 평균적으로 지난 보고서와 비슷하게 완만하게 진행했다고 밝혔다. 흥회의 혼란과 지난달 발생한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의 키 브리지 붕괴는 광범위한 가격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미국 연준이 연 총 8차례 퍼내는 베이지북은 연준 산하 각 지역 연은 경제 상황 의견을 취합한다. 노동시장, 가격과 소비지출, 제조업, 서비스, 부동산건설업 등 상황이 서술된다.

통상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 2주 전에 발표한다. 이번 보고서는 이달 30일~5월 1일 열리는 FOMC 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문예성 기자

美상원, 마요르카스 국토부장관 탄핵심판 부결… 사실상 종료

17일 표결후 매코널 원내대표, “ 좋지 않은 선례”라며 민주당 비난 이민 정책 선거의제로 등장, 계속 격돌…하원 통과 후 상원서 종결

미 상원이 17일(현지시간) 각 당의 주장에 따라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미국 토안보부장관의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결국 51대 49로 마요르카스 장관의 탄핵안을 부결시켰다고 AP통신을 비롯한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다.

CNN과 AP 등에 따르면 하원 공화당은 16일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심판 게시를 위해 탄핵소추안을 상원에 송부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2월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이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하지만 상원은 마요르카스 장관에 대한 탄핵 심판을 연기함으로써 사실상 탄핵이 종료되는 결과를 낳았다.

탄핵안은 총 두 개의 탄핵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이민법을 회피해 적절한 절차 없이 불법 이민자를 미국 땅에 풀어줬고 ▲의회 청문회에서 국경이 안전하다고 거짓으로 진술해 신뢰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마요르카스 장관의 혐의가 탄핵의 요건인 “정도가 높은 중범

죄와 과실들”의 수준에는 미달한다며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반대해왔다.

그러나 상원에서 이 안건이 연기된 이후 11월에 임기를 마치는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비난했다.

하원에서 찬성 214표 대 반대 213표로 아슬아슬하게 가결된 해당 탄핵안은 상원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마요르카스 장관은 거의 150년 만에 최초로 탄핵안이 통과된 현직 장관이 되었고 앞으로도 이민 정책에 관한 문제는 바이든과 트럼프 사이의 선거 이슈로 꾸준히 부각될 전망이다.

공화당 내부에서도 이번 탄핵안에 대

해서 정치적 목적의 좋지 않은 탄핵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탄핵안에 반대표를 던진 3명의 공화당 하원의원 중 한 명인 톰 매클린톡 의원은 이 탄핵안을 “나쁜 정치, 나쁜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마요르카스 장관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경 이민정책을 실행했다는 이유로 현직에서 쫓아내는 것은 선을 넘는 행동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역시 반대 투표를 하고 사퇴를 발표한 켄 벅 하원의원(플로리다주)도 CNN에게 “내가 의회에 진출한 지 9년 3개월 동안 인데 올 해가 최악의 해”라며 공화당의 이번 마요르카스 장관 탄핵안을 비판했다.

차미레 기자



인천환경공단
ENVIRONMENTAL CORPORATION OF INCHON

환경도 경기도 민도 시도 활도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안전 지키GO!
전국 첫 도시침수 예방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자원 다시쓰GO!
공기업 선도 공단
폐기를 자원순환 100% 달성



기후변화 맞서GO!
2030 온실가스 83% 감축,
기후변화 선제 대응



서비스 올리GO!
환경교육 인프라 및
환경 빅데이터 플랫폼 조성



IBK 기업은행이 나에게 왔다

중소기업 대출, 이제 비대면으로 신청하세요

집에서 사무실에서 클릭 몇 번이면

내 기업에 맞는 제안이 찾아옵니다

**대출을 위해 하던 수고와 노력
이제 기업은행이 합니다**



IBK 대출통로 BOX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1561호(2024.03.20) 유효기간(2025.03.19) • 대출통로 BOX 관련 자세한 문의는 BOX고객센터(☎02-729-7633) 혹은 IBK고객센터(☎1566-2566)으로 연락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귀하의 개인신용평점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 개인신용평점 하락 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일정기간 대출 원리금을 연체할 경우, 모든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취급이 부정당한 경우(연체금 보유, 개인신용평점 등 낮음)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담보 물건, 담보종류 등에 따라 대출조건이 차등 적용되며, 담보물이 부적합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금융상품 관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상품(서비스)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금융소비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에 따라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충분히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그 설명을 이해한 후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라면 누구나 은행방문 없이 대출신청과 상담이 가능한 비대면 서비스

OPEN

당행 거래고객이 아니라도
사업자라면 누구나 이용 가능

O2O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은행이 알아서 연락하는 O2O 대출 서비스

ONE-STOP

복잡하고 다양한 대출심사 서류를
비대면으로 한 번에 제출



대출신청 바로가기

윤, 차기 인선 구상... 김한길·장제원 주목

홍준표, 차기 국무총리·비서실장 후보로 제시

홍준표 대구시장(사진)이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차기 국무총리 후보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을, 대통령 비서실장 후보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을 추천한 사실이 확인됐다.

홍 시장은 18일 "두 사람을 추천했다"며 "수용 여부는 대통령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과 홍 시장은 지난 16일 서울 한 장소에서 4시간가량 만찬을 갖고 향후 국정운영 방향과 주요 인물



선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길 위원장은 윤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며, 야당 출신이라는 점에서 중도 지지층 확보가 기대된다. 다만 호불호가 갈리는

인물이라는 지적도 있다. 한편 장제원 의원은 친윤(친윤석열) 핵심 측근으로, 대통령과 가까운 자리에서 각종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인물로 평가된다. 그러나 야권에서는 친윤계 인사 기용에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박용국 기자

위성정당 합당에 38억 국고보조금 “준연동형 비례제 재검토해야”

국민의힘·민주당, 자당 위성정당과 합당해 선거보조금 ‘꼼수’ 지적

22대 총선을 위해 만든 여야의 위성정당들이 모당과 합당하면서 38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을 받게 되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8일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미래’와의 합당을 위한 전당대회 개최를 의결했다. 국민의미래는 이번 총선에서 36.67%의 득표율로 18명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해 28억원의 선거보조금을 받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을 해체하고 의원들을 복귀시킬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22.69%의 득표율로 14명의 비례대표를 배출, 28억원 가량의 보조금을 받았다. 법에 따라 위성정당들이 22대 국회 전까지 의석을 유지하면 내달에도 9억원 가량의 경장보조금을 추가로 받게 된다. 결국 위성정당 합당으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8억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확보하게 됐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꼼수 정당’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정치권에서는 이런 행태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용국 기자

의료개혁 특위 출범 임박하나?... 의료계 참여 ‘갈등’

의협·대전협 등 “1대1 대화체 구성” 주장, 시간 촉박

대통령실이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정책 등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할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이르면 이번 주 출범시킬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위에는 정부 인사와 의사·간호사·약사 등 의료계, 환자단체 등 20여명이 참

여할 것으로 보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주요 의료단체의 참여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다. 의협과 대전협 등 일부 의료계에서는 정부와 1대1 대화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들은 복수의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특위 구성 시 정부안에 프레임이 맞춰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 의협 관계자는 “다른 나라 사례를 보더라도 의사 수가 과반을 차지하는 구조”라며 “의료계와 관련 없는 국민단체 등은 정부와 같은 목소리를 낼 수 없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의사인력 추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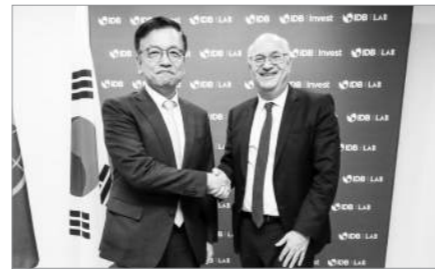
등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한 별도 기구 구성을 주장하고 있다. 정책 결정 전에 전문가 검증이 거쳐야 한다는 취지다. 하지만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료 공백 사태 장기화 우려도 있어 조속한 중재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의대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 발생일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이나래 기자

정부, 23억달러 규모 우크라이나 재건지원 본격 이행

정부가 전쟁 피해를 입은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해 23억 달러 규모의 지원 패키지를 본격적으로 이행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5차 우크라이나 지원회의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G20 정상회의 때 발표한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으로, 다자개발은행 1억달러, 인도적 지원 2억달러,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20억달러 등이 포함됐다. 최 부총리는 이번 회의의 계기에 미주개발은행(IDB) 총재를 만나 중남미 민간부문 발전을 위한 IDB의 새 전략에 한국도 1억5000만달러 규모로 참여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오는 7월 브라질에서 열리는 ‘한-중남미 혁신무역 포럼’에 IDB의 협조를 당부하고, 한국 인재들의 IDB 진

출 기회 확대를 요청했다. 이나래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이, 일랑 고우드파일 미주개발은행 총재 면담하는 모습. ©기획재정부

농가 고령화 심화... 65세 이상 인구 비중 사상 첫 50% 넘어

농촌 고령화가 더욱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3년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

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농가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 인구 비중이 사상 첫 50%를 넘어선 52.6%를 기록했다.

전체 농가 인구는 208만 9000명으로 전년 대비 3.5% 감소했다. 특히 70세 이상 인구가 36.7%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60대 30.7%, 50대 14.9% 순이었다. 농가의 고령화로 경영주 연령대도 70세 이상이 47.8%로 가장 많았다. 한편 어가와 임가의 고령 인구 비율도 각각 48.0%, 35.5%로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나래 기자

“야당의 일방적 본회의 안건 처리, 국회법 무시한 입법폭주”

양곡관리법·농산물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5건 단독 의결 반발

국민의힘은 1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야당 없이 단독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재정부담 증가 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의 ‘최저가격보장제’ 도입에 대해서도 “과잉생산과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시장기능을 잠식하고 오히려 농가 소득 감소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반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이 의사일정과 안건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했다”며 “국회법을 무시한 거대 야당의 입법폭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측은 “정부와 여당은 수급관리를 통한 가격안정, 전략작물직불제 확대 등으로 공급과잉에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정부의 재외 요구 후 국회에서 부결된 ‘쌀 강제매수’ 조항을 부활시켰다”며 “과잉생산 유발, 쌀값 하락,

그러면서 “민주당은 입법 독주를 중단하고 신중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촉구했다. 박용국 기자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가결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뉴스시스

“1심 형량 너무 가벼워” vs “매표 목적 아니었다”

윤관석 ‘민주당 당대표 선거 돈봉투’ 사건 항소심

2021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사진)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의 항소심 첫 공판이 18일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윤 의원과 강 전 감사에게 내려진 1심 형량이 너무 가벼웠다”며 형량 증가를 주장했다. 반면 윤 의원 측은 “매표 목적이 아닌 감사 표시였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윤 의원은 국회의원이기도 헌법 가치를 정면으로 훼손했고, 금품 살포의 핵심 역할을 맡아 엄중한 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소극적 태도와 증거인멸 시도도 있었다”며 양형 이유

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윤 의원 측은 “잘못을 반성하지만 매표 목적은 아니었다”면서 “일부 의원들에게만 돈봉투를 준 것을 보면 감사 표시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담 금액도 1000만원에 불과했다며 6000만원 혐의를 부인했다. 강 전 감사 측은 “1심 형량이 너무 무거웠다”는 취지로 항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음달 30일 강 전 감사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 종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

윤 의원과 강 전 감사는 2021년 5월 당시 송영길 당대표 후보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윤 의원은 징역 2년, 강 전 감사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용국 기자

판결을 받았고, 윤 의원은 징역 2년, 강 전 감사는 징역 1년 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았다. 박용국 기자

프리미어리그 아시아 선수 최초 골든부츠(득점왕) 수상 **손흥민**

안티푸라민 콜에어파스 에어로솔 의약품



대한민국이 당신과 함께 달리겠습니다.



유한양행

굿피플, 르완다 비하리 유·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양질의 교육 누릴 수 있도록”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회장 김천수)은 지난 2월 29일 르완다 비하리 유·초등학교에 컴퓨터실과 도서관을 건축하고 운영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했다고 최근 밝혔다.

르완다 부게세라(Bugesera) 나마타(Nyamata) 지역에 위치한 공립 초등학교들은 교육 인프라 시설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르완다는 ICT(정보통신기술) 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하는 정부 정책에 따라 초등학교의 컴퓨터 및 태블릿 PC 보급률을 62%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나마타 지역의 공립 초등학교들은 다른 지역의 초등학교와 달리 컴퓨터실이 없어 ICT 교육을 진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또한 학생들은 책을 읽고 싶어도 학교에 도서실이 없다 보니 교과서 외에 다른 양서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성 향상을 통해 학생들이 르완다를 이끌어 가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마타 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에 나섰다.

총 8천3백만원이 투입된 이번 사업으로 굿피플은 지난 2월 29일 나마타 지역의 공립학교 중 한 곳인 비하리 유·초등학교에 컴퓨터실과 도서실을 신축하고 노트북 41대와 도서 1천224권, 빔프로젝터 등의 교육 기자재를 제공했다. 또한 컴퓨터실과 도서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컴퓨터 전담 교사와 사서 급여를 지원하

기도 했다.

김천수 회장은 “굿피플은 ICT 교육과 독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학생들이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르완다의 청소년 모두가 양질의 교육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는 굿피플이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굿피플은 지난 2021년 르완다 교육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르완다 공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굿피플은 지난 2월 29일 르완다 비하리 유·초등학교에 컴퓨터실과 도서관을 건축하고 운영을 위한 기자재를 지원했다. ©굿피플

아시아태평양 YMCA 제주본부 개관식 열린다

한국YMCA전국연맹 1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도 함께

아시아태평양YMCA연맹(APAY)제주본부가 4월 19일 제주시 연도에 위치한 한국YMCA전국연맹 제주 다락원 캠프장에서 24개국 YMCA 지도자들을 비롯한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관식을 갖는다.

개관식에 이어 한국YMCA전국연맹 110주년을 기념한 국제심포지엄과 아시아태평양YMCA개관을 축하하는 환영만찬이 제주 글로스터 호텔에서 열린다. 아시아태평양YMAC연맹은 1939년 홍콩에서 창립하여 지금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24개국, 1,000여개 도시의 YMCA들이 소속되어 있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대의 청년 평화운동체이자 에큐메니컬 선교운동체로서 청소년, 기후위기대응, 재난 대응, 성 평등, 인권, 민주주의 발전과 공동체 성장 운동을 전개해 왔다. 이번 APAY제주본부 개관은 지난 2022년 4월 APAY ECM에서 제주도에 새로운 사

무국을 설치하기로 결정하였고, 같은 해 6월에 APAY 제주 본부 착공예배를 시작으로 건축을 마무리해 이날 개관식을 갖게 되었다.

오후 2시부터 3시 30분, APAY제주본부에서 열리는 개관식은 라모나 모랄레스 APAY 부이사장의 사회로 빈센트 조지 APAY 부이사장의 기도, 신대균 APAY 부이사장의 성경봉독, 안재웅 한국YMCA전국연맹 제단이사장의 봉헌의 기도와 필립 토마스 APAY이사장의 축도로 개관 감사예배를 마친다. 이어 신관우 한국YMCA전국연맹 부이사장이 건축경과보고를 하고 필립 토마스 APAY이사장

이 김신향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에 감사패를 전달한다. 축사에는 쇼헤일라 세계YMCA연맹 이사장과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게이코 도네가와 국제와이즈멘 아시아태평양 지역 총재가 말고, 기념식수와 헌관제막식으로 개관식을 마무리하게 된다.

개관식에 이어 한국YMCA전국연맹 110주년 기념 국제심포지엄이 ‘평화와 기후후정의 실현을 위한 국제시민행동’의 주제로 글로스터호텔 제주에서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김신향 한국YMCA전국연맹 이사장의 인사로 시작해 김희교 교수(광운대학교)가 ‘동아시아 평화와 시민 평화행동의

주제 강연을 하고 엠마 레슬리 사무총장(CPCS, Central for Peace & Conflict Students)이 토론한다. 이어 카메이 사토 미(NPO 기후위기대책 네트워크)가 ‘동아시아 기후위기 대응과 시민행동 제안’의 주제 강연을 하고 오기출 푸른아시아 상임이사가 토론한다.

한국YMCA전국연맹과 아시아태평양YMCA연맹은 APAY제주 본부 개관과 한국YMCA전국연맹 110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사회선교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짐하며 국내외 YMCA지도자들과 함께 환경 만찬회로 이날 일정을 마친다. 이나래 기자

더사랑의교회 산하 이음재단, 주사랑공동체에 기부금 전달

(사)이음재단과 이음플랫폼은 최근 부활절 바자회를 공동 주최하고, 여기서 마련된 부활절 생명나눔 바자회 수익금(430만원) 전액을 최근 재단법인 주사랑공동체의 베이비박스에 기부했다.

두 단체는 자원봉사활동 등 각종 지원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필요를 채우고,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곳이다. 행사는 더사랑의교회 영아부가 주관했다.

주최 측은 “지난해 연말 배우 손예진과 현빈 부부가 후원했다고 알려지면서 화제가 됐던 베이비박스는 경제적 어려움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유기 위험에 처한 아기를 보호하고, 산모가 양육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이라고 했다.

법인과 교회 관계자들은 서울 관악구에 위치한 베이비박스를 찾아 2시간가량 머물며 긴급 보호된 아기들 및 봉사자들을 만나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달식을 가졌다. 기부금 전액은 미혼모 가정의 지원 사업과 자립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기금으로 쓰일 예정이다.

이에 대해 황민숙 베이비박스 센터장은



기부금을 전달한 후. ©이음재단

“베이비박스가 아직까지는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없이 운영되는 상황이라 매우 힘들지만, 우리나라의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생명을 존중하는 교회와 생명 존중에 관심이 있는 단체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음재단과 이음플랫폼은 저출산시대에 생명과 관련한 다양한 지원 활동과 봉사 활동을 기획하여 복지 사각지대의 후원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히며, 전달식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번 바자회를 참여하신 많은 성도들과 시민들이 아기의 생명을 지키는 일에도 복지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고, 바자회를 통해 조금이나마 도움이 손길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에 기뻐했다”고 전했다.

사단법인 이음재단과 이음플랫폼(이사장 이인호 더사랑의교회 담임목사)은 더사랑의교회에서 설립해 운영하는 사회봉사 법인이다. 노형구 기자

월드비전, 파트너십 공모사업 ‘오렌지 퍼즐’ 오리엔테이션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월드비전 본부에서 파트너십 공모사업 ‘오렌지 퍼즐(Orange Puzzle)’을 실시하고 이를 알리는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월드비전 ‘오렌지 퍼즐’은 대한민국을 비롯한 전 세계 아동·청소년이 겪고 있는 빈곤 및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혁신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와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기업 및 단체를 모집하는 공모사업이다.

이번 월드비전 오렌지 퍼즐 오리엔테이션은 공모사업에서 최종 선정된 4개 기관 및 단체로부터 제안 사업을 전달받고, 올해 사업계획 및 지난해 사업에 참여한 대표기관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지난달 진행된 온라인 설명회를 거쳐 총 19개 기업 및 단체가 지원했으며 1차 서면심사와 2차 대면 인터뷰를 통해 최종적으로 ▲브라더스키퍼 ▲JAK코리아 ▲임팩트리서치랩 ▲MFPM이 최종 파트너로 선정됐다.

▲브라더스키퍼는 자립준비청년에게



월드비전이 ‘오렌지 퍼즐’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4개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월드비전

일자리 제공과 정서적인 자립을 지원하며 그들의 꿈이 실현되도록 돕는 사회적기업이다. ▲JAK코리아는 청소년들에게 진로취업, 경제금융, 기업가정신, 디지털 리더십 교육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임팩트리서치랩은 지속가능한 사회문제 해결과 사회적 가치창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연구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임팩트 연구 전문 기관이다. 마지막으로 ▲MFPM은 방글라데시 타이거새우 부산물 바이오차를 기반으로 토양 염화 제거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소셜벤처다.

서영인 MFPM 대표는 “월드비전과 함께 어려운 환경에 처한 전 세계 아동 및

청소년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돼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월드비전의 파트너로 선정된 만큼 빈곤 및 불평등 문제에 대한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이와 더불어 실현 가능한 사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조명환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진행된 오렌지 퍼즐 공모사업에 많은 기업 및 단체가 관심을 보여주셨다”며 “앞으로도 월드비전은 전 세계에 있는 아동들에게 더욱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많은 기업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동아보검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들 경옥고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검 경옥고는 동아보검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일반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상의하십시오

반드시 갖추어야 할 믿음의 가장 기본(1)

박진호 목사
엠펙스커버우즈한인교회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치도 아니하리이다.”(시 26:1-4)

시편 26편은 다윗이 저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를 접하는 순간 첫 구절부터 왠지 모르게 주눅이 듭니다. 그는 완전함에 행했으며 요동치 않고 여호와만 의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더러 감히 자기를 판단해보라고 합니다. 이어지는 표현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주의 진리 중에 행했으며 허망한 사람 같지 아니하고 간사한 자와는 상대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완전하면 이런 자신감(?)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세상 속에 섞여서 신자 표시가 나가는 커녕 불신자들과 거의 동일하게 세속적 방식으로 살고 있는 저희와 너무 대조적인 것 같습니다. 솔직히 주일에 교회 출석하는 것과 식사 때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이가 우리에게서 신자라는 표시를 발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다 우리 믿음은 사람들 앞에는 물론, 하나님 앞에 꺼내놓기가 더 부끄럽습니다. 믿음이란 사람들 관계에 앞서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겠습니까? 현실에서 조금만 힘든 일이 생기면 우린 그저 요동치기 바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과 신실함에 대해 의심이 솟구치며 나중에는 불만과 불신으로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나 본문을 자세히 몇 번이고 읽으면 단순히 그런 뜻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2절)라고 했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정말로 완전하다고 확신했다면 굳이 그런

요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다”(3절)고 했으니 주의 인자를 구한 것입니다. 인자란 잘못과 허물을 용서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따라서 다윗이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완전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인간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단 한 명도 그럴 수 없습니다. ‘완전(完全, perfect)’이란 오직 하나님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아무리 위대한 신앙위인이라 해도 완전하다고 여겨지면 일단 오류라고 판단해야 합니다.

또 첫 구절의 “완전함”이라는 표현은 엄밀히 말해 번역 상의 오류입니다. 원어의 뜻은 ‘무죄함’ 또는 ‘성실함’입니다. 거기다 다윗은 “나의 완전함”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볼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간사한 자와 동행도 않고,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했다”(5절)던 것입니다. “무죄하므로 손을 씻고”(6절)도 완전 무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정결례를 통해 영적으로 순결해진 후에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자신도 지금 그렇게 한다는 뜻입니다. 순진하고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뵈기를 소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디까지나 자신의 무죄함을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2절)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스스로는 죄악과 악인에게서 멀어지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측면이 있다면 하나님이 판단해서 자기를 연단해사라도 거룩하게 고쳐 달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거룩해지려 최선을 다했고 또 실제로 자신이 판단해보아도 무죄한 것 같다고 말하니 말입니다. 그의 말에 영적 교만이, 최대한 양보하여 종교적 자부심이 알게 모르게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영적 차원과는 현격히 다릅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갈 때마다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고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근거를 본문 안에서 찾자면, 성경은 반드시 성경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오

직 하나입니다. 바로 “여호와를 의지하여 요동치 않았기”(1절) 때문입니다. 또 다시 힘이 빠지는 까닭은 우리는 여호와를 최대한 의지해도 수시로 요동하며, 그와 동시에 주위 환경과 일어난 일들로 요동하니가 여호와를 온전히 의지하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물어봅시다. 다윗에게 정말 영적으로 요동치는 상태가 전무했을까요? 아닙니다. 그가 지은 시편들을 보십시오. 그만큼 현재 상황에 불안해져 하나님마저 의심한 자도 없었습니다. “내 하나님이며 내 하나님이며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돌지 아니하옵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시 22:1)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들었지만 그는 우리의 성정이 똑 같은, 다른 말로 절대 완전한 것과는 거리가 먼 인간으로써 걱정과 염려에 자주 사로 잡혔습니다.

“요동치 않는다”는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우선 본문에서 “넘어지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능동형으로 사용될 때는 미끄러지는 것을, 사역형으로 사용될 때는 흔들리는 것을 뜻합니다. 본문에서 능동형이기에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니라 미끄러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완전히 쓰러져 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었던 근거는 물론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원어의 뜻을 몰라도 다시 강조하지만 “전혀 요동치 않는 완전함”은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불가능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 자체에도 동일한 의미가 적용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을 믿는 세기와 영성과 정성에서 흔들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끝까지 붙들고서 놓은 적은 없어야 합니다. 내 믿음의 상태에선 요동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분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에서만큼은 요동함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의 궁극적, 절대적, 완전한 피난처라는 것입니다. 그분 외에 세상의 어떤 사람도 사물도 자신의 궁극적, 절대적, 완전한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 믿음이 지향해야 할 완전함이 의미가 들어났습니다. 주위 사람과 여건이 자신의 믿음을 아무리 흔들지라도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과 초조

가 엄습할지라도 하나님 그분만은 끝까지 놓지 않는 것입니다. 아야말로 신자가 갖추어야 할 가장 기본 조건 아닙니까? 가장 기본이라는 것은 그것이 없으면 아무 것도 아니고 출발도 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완전함은 이뤄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그 기본만 제대로 지키면 완전함에 이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신자가 끝까지 붙들어야 할 피난처라고 하니가 혹시라도 모든 세속적 수단과 자신의 능력을 다 동원해보고 그래도 안 되기에 마지막으 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 중 대다수는 거의 매번 그렇게 하지만, 다윗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만나도 곧바로 처음부터 그분만 붙들었습니다.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 의심과 불만을 그만큼 솔직하게 토로한 자도 없었습니다. 역으로 말해 그는 처음부터 오직 그분만 바라보았기에 “왜 내 신음 소리를 듣지 아니하느냐”는 의심과 불만을 감히 토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두에서 “완전함”은 “성실함”이라고 했습니다. 성실함이란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다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어쩔 수 없어져서 그분을 찾았다면 스스로 부끄러워사라도 “나의 완전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분만이 “온전한 피난처” 되십는 신자라면 누구라도 확신하는 진리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진리를 붙들고서 절대로 놓지 않는, 자신의 감정 상태의 오르고 내림과 무관하게, 신자는 아주 드물니다.

무엇보다 간과해서는 안 될 사항은 이 시편에서 다윗은 현실의 어려움에서 도피할 곳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죄악에서 멀리하여 자신의 완전함을 지키는 일의 도피처로 찾았습니까.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9절), 대신에 자신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8절)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단지 현실의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능력이자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신자로서의 완전함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더욱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만이 자신을 죄와 악인으로부터 건져주실 수 있음을 온전히 믿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을 놓지 않는 것이

입니다. 또 그래서 자신이 죄의 유혹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아마도 밋 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에 지은 시일 것입니다.)

다른 말로 “신자가 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완전히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 그분께서 신자보다 더욱 바라지 않고 또 절대로 그렇게 방관 허용하지 않는다.”는 진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믿고 놓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 자신의 완전함을 판단해달라는 것도 자신의 도덕적 종교적 완전 함만이 아니었습니까? 자기가 바로 이 진리를 제대로 믿고 붙들고 있는지부터 판단해 달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렇지 못한 점이 있다면 다시금 단련해서 그 진리를 붙들어서 “여호와가 주시는 평안 가운데 설 수 있게”(12절) 해달라는 것입니다.

사두에 설명한 우리의 영적 상태와 다시 비교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유, 또 그분을 의지하는 근본 자체, 나아가 우리가 자기 믿음을 판단하고 강하게 하려는 방향, 등등 모두가 너무나 어긋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이 하나님 보시는 완전함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다윗처럼 나의 완전함을 판단해달라는 요구도 아예 할 수 없음이 무슨 연유인지 이제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껏 너무나 부끄럽게도 내 쪽의 의지와 열성을 높이면 믿음이 좋고 강해지고, 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현실적 고통을 해결해 주신다는 정도로 밖에 이해 적용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선을 행하면 은밀히 값이 주실 것이라는 차원까지도 가지 못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바꾸는 일에서 너무나도 성실하십니다. 나머지 모든 일들은 즉, 우리가 보고 겪는 현실적 사건과 환경은 그분의 그런 성실함의 발로입니다. 요컨대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놓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의미가 지금까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고난에서 견디시는 “잔존함”을 놓지 않는 것에서, 당신께서 계획해 놓은 영광의 자리에 까지 우리를 당신께서 반드시 이르게 하셔야 마시는 그분의 “성실함”을 바라는 것으로 말입니다.

교회 전체의 시스템과 교인 각자의 사역



서봉चे 목사
케냐 멜빈대학교 총장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다. 전체를 보라는 말이다. 어떠한 것을 볼 때나 행동들

을 할 때 통찰력과 관찰력을 가지고 시야를 넓혀라. 작게 보지 말고 크게 보라, 작은 것에 신경쓰여 큰 것을 놓치지 마라, 사소한 일에 스스로를 묶어 매지 말고 큰 일에 힘을 써라, 등등이었다.

우리의 사역에도 비슷한 말이 있는데 멜빈 목사님께서 사용하신 SIB.KIS(See It Big, Keep It Simple)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어떤 사역을 할 때에 “우선 전체를 [알고] [실천]에서는 구체화하라는 뜻이다. 나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봐

서는 교회 전체에 대한 시스템을 갖추고(SIB), 개인의 사역에 집중하라는 것이다(KIS). 우리의 사역(평신도목회)에 비추어보면 Lay Pastors Ministry(LPM)는 시스템으로 큰 그림이고(SIB), PACE(Prayer, Available, Contact and Example)로 실천설명서(KIS)가 되는 것이다. 즉 숲과 나무 양 쪽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 중요하다.

멜빈 목사님께서는 두 권의 책을 썼는데, 첫 번째 책은 사역자 개개인의 사역설명서인 ‘나무(구체적인 사역)에 비유된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두 번째 책은 그 개개인의 사역들이 교회 안에서 시너지를 내야 할 때는 어떤 시스템이 필요한지를 다룬 책이다. 그래야 교회에 유익이 되고 더 큰 네

지가 생기고, 전체적인 문화가 만들어지면서 더 큰 비전으로 발전될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개개인이 하는 사역이 개별적으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 ‘공동의 사역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면 시스템이 작동하여 교회가 기대했던 대로 효과적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교인 각각의 사역을 하되, 전체 시스템은 목회자가 만들어주어야 한다. 그렇기에 교인은 나무만 봐도 되지만, 목회자는 나무와 숲, 두 가지를 보아야 하는 것이다. 마치 연과 된 두개의 다른 그림을 동시에 보듯이, 연관된 두권의 책을 동시에 보는 것과 같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개 교회들은 큰 그림은 얘기하고 또 설명한다

(SIB: See It Big) 큰 비전 제시는 너무 좋다. 그런데 그것을 교인 개개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하라는 실천설명서(KIS: Keep It Simple)가 없으면 울리는 썰매리요, 시끄럽게 소리나는 빈 수레에 불과하다. 이것은 사실 우리가 종종 보는 실재적인 예이다. 그래서 SIB.KIS가 중요하다.

이 두 가지는 각각이 별개로 매우 중요하다. 어떤 사역에서든 목회자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목회자의 기본 임무는 숲을 먼저 봐야한다(SIB). 그리고 성도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알아야 한다(KIS). 마치 벽에 걸려있는 두 개의 완전한 그림을 동시에 보는 것과 같다. 숲이 나무나 나무의 선택목재가 아니다.

세상에 행복을 물로 더 행복한 세상!
World Top K-water

한국수자원공사가 국민감동을 위해 거듭나겠습니다.

환경부 |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제44회 장애인의 날, 장애 이해 교육 실시... 특수교육 관계자 표창

유·초·중·고 학교급별 '장애 이해 교육' 실시 특수교육 관계자 총 125명 표창

교육부는 4월 20일(토)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학교급별 '장애 이해 교육'을 실시하고, 장애학생 교육에 기여한 교

원 등 특수교육 유공자를 포상한다. 교육부는 학생·교원 등 학교 구성원의 장애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매년 특별

기획 방송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를 제작보급해 왔다. 올해도 유·초·중·고 학교급별 장애 이해 교육을 위한 방송 프로그램을 송출하고, 국립특수교육원 누리집 등을 통해 방송 영상물과 교수학습 자료를 배포하여 학교에서 장애 이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제26회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한 전국 초·중·고 등학생 '백일장'을 개최한다. 참가를 희망하는 학생은 사산문방송 소감문과 독후감(초등) 또는 웹툰(중등) 부문에 자유롭게 응모할 수 있으며, 선정된 우수작품에는 교육부장관상 등을 수여한다.

교육부는 장애학생의 교육과 사회통합에 혁신한 교원·공무원, 일반인 등 총 125명에게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표창을 수여한다. 이를 통해 학교 현장과 우리 사회 곳곳에서 장애학생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한 특수교육 관계자들을 유공자로 선정하고 그 노고에 감사를 표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장애 이해 교육이 특수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장애 공감 문화 확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장애학생이 마음껏 공부할 수 있는 장애 포용적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이주호 기자

서울 중·고교 과정에 인성·AI교육 강조... 고교엔 노동인권 교육도

올해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 개정본 고시 인공지능·데이터 소양 가르치는 교육 강조

올해부터 서울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에 강조 분야로 인성교육과 지능 정보 교육이 신설된다.

서울시교육청은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에 따른 서울 지역 교육과정 전부 개정본을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개정본은 학교에서 실제 운영해야 할 교육과정의 일반적인 기준과 시교육청의 지원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학교급별 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지침 성격을 지닌다.

중장 정부가 정하는 국가 교육과정의 내용과 틀을 정한 것이라면, 지역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의 범위 내에서 지역 특색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시한 것이다. 학교는 각 시도교육청이 마련한 개정본에 따라 각 학교의 상황과 여건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만들 수 있다.

이번 개정 교육과정은 올해 초등학교 1, 2학년부터 적용되며 내년에는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도 본격 적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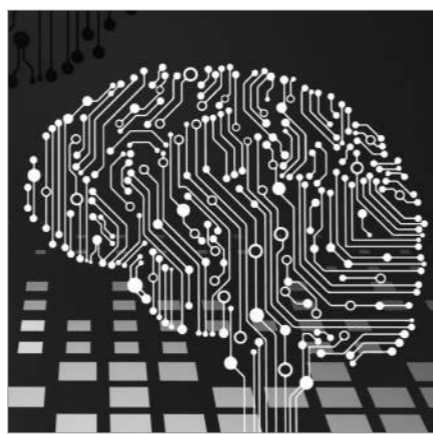
올해 서울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정엔 강조 사항으로 기초소양 교육, 인성 교육, 지능정보교육이 신설된다.

기초소양 교육은 언어·수리·디지털 관련 기초소양을 가르치는 것이다. 인성교육은 내면을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시민의 성품과 역량을 함양하는 교육이다.

지능정보 교육은 인공지능·데이터 등에 대한 기본 소양과 태도, 활용·윤리 교육 등을 강조한 교육이다.

그 밖에 독서토론·글쓰기 교육, 민주시민 교육, 생태전환 교육, 안전·건강 교육, 역사·통일 교육, 예술 교육, 진로(직업) 교육도 강조 분야로 설정됐다.

고등학교에선 노동 인권 교육이 강조



용이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도 함께 반영됐다.

고등학교는 학점 기반의 선택 중심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도록 하고, 학기 단위의 과목 이수와 기본 학점과 증감 범위, 학점 배당 기준 등을 마련하도록 했다.

특수교육에서는 사회적 과목이 신설되고,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자율성을 확대했다. 학생별 장애 특성과 정도를 반영한 '일상생활 활동' 영역도 신설됐다.

한편 시교육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교원 설문, 교원학생·학부모 대상 토론회, 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이번 교육과정 개정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교육 교육과정 고시와 함께 학교가 자율적으로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특히 고등학교의 고교학점제 적용에 대비한 교육 여건 조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기자

내게 도움 되는 든든한 정책 정보, '2024 케이-희망사다리'에서 찾으세요

200여개 최신 생활 지원정책 모음집 발간 교보·에스24 인터넷서점에서도 무료 다운로드 가능

청년 등 국민을 위한 지원정책은 해마다 다양해지고 있으나, 국민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최신 정책 정보를 쉽게 찾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이 자신에게 맞는 지원제도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생활 지원정책 모음집, <국민을 든든하게 2024 케이-희망사다리(이하 케이-희망사다리)>를 발간했다.

<케이-희망사다리>에서는 정부가 올해

중점 추진하는 국민 생활 지원정책 중 꼭 필요한 200여개 정책을 엄선해 생애주기별(아동·청년·중장년·어르신)과 분야별(복지·일자리·문화·건강·안전)로 나누어 정리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뉴홈' 등 주거 지원정책, 냉난방비 지원정보를 담은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 직접 일자리' 등 윤석열 정부의 포괄적인 약자 복지 정책을 꼼꼼히 찾아 수록했다.

여기에 '케이-패스', '청년 문화예술패스' 등 신규 지원정책과 청년을 위한 일자리·자산형성·주거 지원·사회복지 지원 등 국민이 지금 필요로 하는 최신 지원정보도 빠짐없이 실었다.

특히 각 정책 누리집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QR코드를 넣어, 책을 본 후 바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이용 편의를 높였다. 올해 처음 시행되는 민생 지원정책과 신청해야 하는 숨은 정부지원금 찾기 등 생활에 유용한 핵심 정보는 책 끝에 별도로 구성된 '책 속의 책' 브로마이드에 따로 담았다.

<케이-희망사다리> 책자는 누구나 지

자체 민원실이나 전국 도서관, 보건소, 우체국, 은행 등 다중 이용 장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인터넷·모바일로 이용할 수 있는 전자책은 정책주간지(케이-공감) 누리집(gonggam.korea.kr)이나 '교보문고', '에스24' 등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일자리와 주거, 돌봄, 건강 등 국민 생활에 꼭 필요한 최신 지원정보를 폭넓게 수록했다"라며 "몰라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책이 국민 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서다은 기자

세이브더칠드런,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 발간

장애아동 학대 매년 증가... 학대판정 비율은 절반에 그쳐 특수한 상황 반영한 대응체계와 협력적 접근 필요

국제아동권리NGO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인권네트워크와 함께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아동 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와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발간한다고 18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아동학대 사례 건수는 2018년 24604건에서 2021년 37605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장애아동 학대 비율은 전체 아동학대의 약 0.4%로 이 역시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장애아동 학대 판정 비율은 2022년 기준 실제 학대 사례 413건의 절반 수준인 249건에 그쳤다.

이번에 발간한 '장애아동학대 대응체계 내 협력방안 연구 보고서'는 장애아동 학대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업무매뉴얼 및 지침을 마련하고자 진행됐다. 이번 연구는 세이브더칠드런과 상지대학교 산학협력단 박명숙 책임연구원 등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아동보호 체계에서는 아동학대 대응체계와 장애인학대 대응체계의 이원화로 인해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현장 인프라가 부족해 장애아동 학대 대응의 협력이 어렵고, 특히 아동학대 조사와 사례관리에 있어 협업 관련 지침이 미비해 책임소재가 미뤄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피해 장애아동이 입고 있다.

분리 조치된 학대피해 장애아동이 명확한 절차 없이 보호자 요구로 장애인 시설에서 퇴소하거나, 입소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거 법률이 다르다는 이유로 성학대 피해 장애아동이 집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아동보호체계에서 장애아동과 같은 특수한 상황을 반영한 적절한 아동보호 대응체계 마련이 절실한 이유다.

이 연구를 바탕으로 장애인권리네트워크는 세이브더칠드런의 지원을 받아 '종사자를 위한 학대피해 장애아동 지원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는 학대피해 장애아동을 지원하는 현장의 종사자가 '장애'와 '아동'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궁극적으로 아동학대지원 체계 및 장애인학대지원체계 간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세이브더칠드런 정태영 총장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장애아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절실하다. 이 안내서가 마중물이 되어 장애아동 학대대응체계 내 협력이 강화되고 장애인학적 관점에서 아동보호체계가 개선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이주호 기자

성명서, 칼럼, 논평 등 언론에 게재된 송암 권태진 목사의 글 모음집

대한민국 현대사 30년을 정리한 '역사 교과서'이자 '역사 지침서'

광야에서 희망을 외치다

최신간 NEW

권태진 지음 | 170x240mm(양장)
400쪽 | 33,000원 | 성빛출판사
2023년 10월 15일 발간

저자 : 송암(松巖) 권태진

저자는 1978년 10월 15일 천막 하나로 교회를 세운 군포제일교회의 담임목사이다. 설교들과 신앙한 가족이 된 그의 사역을 보고 사람들은 어비목회라 불렀고 끝없는 사랑의 돌봄을 어비복지라 칭했다. 그는 한국 교회의 본질 회복과 연합 운동을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늘 순종하며 심장으로 믿어지는 목회자이다. 예장 합신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대표회장 등 총회와 연합기구의 수장으로 지역, 교단, 교파를 초월해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되는 운동을 계속해왔고 일남전(영호부대) 참전용사로서 피 끓는 애국심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그는 '송암'이란 호를 가진 시인이기도 하다. 1994년 문예사조를 통해 시인으로 등단했으며 국제PEN회원, 한국문인협회원으로 시, 열두 권의 시집, 열두 권의 시집, 열세 권의 에세이 등 총 44권의 저서를 집필했다. 한국전송가개발원의 이사장으로서 찬송 작사가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오직 예수님이 희망'임을 삶으로 전하며 쉬지 않고 영원한 나라를 향해 달려간다.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BIRMINGHAM THEOLOGICAL SEMINARY 목회학 박사(D. MIN.), LOUISIANA BAPTIST UNIVERSITY 명예철학박사(Ph.D.),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 명예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현재사단법인 성민원의 이사장이며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이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신) 96회 총회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30대 대표회장, 한국교회연합 89대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다.

(이재훈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었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아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복음이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생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검손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여 믿어지게 하는 생명수를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총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사: 이재훈 목사.
장소: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일시: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전화: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훈)

너희는 마음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딤후4:2)

전도용 사랑의 건빵

많은 사람을 옳은데로 돌아오게 한자는 별과같이 영원토록 빛나라 (다니엘서2장3절)

믿을 수 있고 맛과 품질이 우수한
금품제과 제품입니다!

심희승 대표(화창)
010.9289.2442. 02.2273.7247.
신한은행.110.191.288484.

문의: 010 9289 2442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부흥회 특징]

불같은 찬양

생수같은 말씀

강력한 축사

우울증해결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목회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1995~2024 / 국내 최초, 국내 유일
교회복지연구원

교회복지학과 신입생 모집

2024년도 봄학기 신입생 모집

- 모집인원 : 00명
- 모집기간 : 2024년 4월 1일 ~ 4월 30일
- 교육기간 : 2024년 5월부터 12주
서울(화요일), 대전(목요일)
- 교육장소 :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강의실(3층, 4층)
및 본원 강의실
* 서울은 단 1명이 등록해도 개강합니다.
- 등록비 :
- 50만원(점심식사 제공, 국내 교회복지 실습비 포함)
- 500만원(호주 & 미국으로 교회복지 실습 희망 시)
* 등록비는 개강식 이후 1개월 이내에 납부하시면 되며 분납도 됩니다.
- 등록방법 :
010-9643-6356 문자로 성명, 직분, 등록 지역을 보내시거나 www.cws95.net 신청에서 이름, 연락처, 이메일을 기재하시고, 신청 내용에 신청(예/서울 신청)이라고 하시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 상담문의 : 010-8011-9191(서울/김성덕 박사)
010-5115-9104(대전/정바울 박사)

[특전 및 진로]

- 2년 4학기 수료자는 본원 졸업증서 및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자격 발급비 없음)
- 목회자의 경우 1학기 수료 이후 소정의 자격시험 합격 시 교회복지사 자격 취득
- 목회자의 경우 국내외 교회 및 기독교 관련 복지기관 및 시설 교회복지 전문 목회자로 활동
- 평신도의 경우 국내외 교회복지 기관 및 시설, 기독교 사회복지 기관 및 시설 설치 및 운영

www.cws95.net

말씀 가운데 자연과 함께 사는 좋은 사람들의 요양원

인양비산동
교회 소속

소망의동산실로원

2021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A) 최우수기관

소망의 동산 실로원은 장기적인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께 쾌적한 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들과는 수발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 안정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 드리하고자 합니다.

주소 | 경기 화성시 봉담읍 분천길 185

예배시간 | 주일 오전 9시 / 수요일 오전 9시 (이보영 원로 목사님)

노년 장기요양등급 1~5등급(시설등급)으로
가정에서 일상생활이 어렵고 지속적인 수발과
간호가 필요한 어르신을 모집합니다.



입소 상담 문의 | 031-227-1460 / 원장 010-6217-4208

교회건축의 모든 것
교회건축포럼

교회건축&리모델링 세미나

주제 _ 바라보는 교회건축

2024.04.30(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서울 양재 엘타워 골드홀(B1층)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 213 / 3호선, 신분당선 양재역 9번출구 바로 앞 위치]

2024.05.07(화)

오전 10시 ~ 오후 5시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3F 포럼 2

[부산 해운대구 마린시티3로 52 / 2호선, 동백역 1번출구 도보 15분]

- 참가비 : 30,000원(중식 및 기념품 증정)
- 후원은행 : 1005-604-628807 [예금주 : 교회건축포럼]
- 문의 및 등록
- 전화등록 : 070-4355-3308
- 문자등록 : 010-3966-1463
- [문자등록시 (1.교회명 / 2.등록자명(직분) / 3.참석인원 / 4.핸드폰번호)]
- info@cbuild.co.kr



설계
(주)아진건축사사무소 최두길 대표

- 팬데믹 이후의 교회성장을 위한 설계
- 뉴노멀로서의 교회공간의 복합화
- 지속성장을 위한 혁신적 공간전략
- 신재생 녹색 환경의 교회



미디어
(주)크리스시스템 박정민 실장

- 더 나은 유튜브 예배송을 노하우
- 방송장비 운영인력의 솔루션
- 대형 led 구축과 운영의 실제
- 할스 스피커와 음향기술
- 연무대학교 7000여 조명 리뉴얼 사례
- 기독교 뮤지컬투어 방송 사례(수영교회/ 호산나교회)



인테리어
에스스리글로벌 최종민 대표

- 강력한 효율을 얻는 리모델링 사례 분석
- 예배를 돕는 공간 연출의 기준
- 다음세대를 위한 공간 활용
- 건축방향과 인테리어의 중요성
- 라운지의 카페, 레스토랑 솔루션
- 3D 시각화를 통한 아이디어 적용 방법



CM
(주)라미건축사사무소 이범구 대표

- 교회건축 전문가가 사례를 통하여 전하는 교회건축의 올바른 방향
- 교회건축, 교회가 우선이다
- 교역자가 알 필요, 건축위원회가 알 필요
- 설계자의 업무, 사공사의 업무
- 감리자 및 건설사업관리자의 역할과 책임

신간 **하나님의 선물**



사람은 평생 많은 선물을 주고 또 받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의 것들과 전혀 다르다. 하나님의 선물은 조건이 없으며 투명한 사랑 그 자체이다.

저자 이동원 목사(지구촌교회 원로)는 이 책에서 구원, 환난, 재능, 육체와 성, 권력, 천국 등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20가지의 선물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성경적 관점에서 이들이 선물인 이유를 설명하고 이를 누릴 수 있도록 그리스도인의 삶을 격려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영어 성경은 구원이 ‘은혜에 의하여’(by grace, KJV) 얻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은혜는 본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어지는 일반적인 사랑 혹은 호의를 뜻하는 단어다. 이 은혜는 인간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주도적인 사랑에 뿌리박고 있다’며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런 고통을 막아 주지 않으시는지 묻지는 말아 주길 바란다. 아무리 성경을 묵상해도 그 대답은 쉽게 발견되지 않는다. 그래서 신앙의 선배들은 그것을 ‘고난의 신비’라고 말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고난의 밤, 환난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아파하시며 우리 곁에 다가와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에게 아들과 같으리니라는 표현을 주목하시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살려내는 이슬 같은 존재이듯 주의 영적 가족들의 존재 의미 역시 서로가 서로를 살려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말이다. 모든 교회 청지기가 교회의 사역을 감당할 때 점검해야 할 요소 세 가지를 떠올리게 된다. 첫째, 나는 이 일하기를 좋아하는가? 둘째, 잘할 수 있는가? 셋째, 그 일을 성령 충만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가? 그때 비로소 우리가 타고나는 자연적 재능들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는 복된 통로가 되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그 공간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 즉 그의 섭리의 요모함을 증명한다고 말한다. 그래서 일찍이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자연을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The Theatre of God's Glory)이라고 말한 바 있다. 로마서 1장 20절의 바울의 증언을 들어 보길 바란다. 만물 곧 자연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드러내는 영광

의 증언이라는 말이다”라고 했다.

또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킨다. 7절에서 시편 기자는 ‘여호와와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라고 말한다. 이 구절은 6절에 이어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토라)이 태양의 온기처럼 작용하리라고 가르친다. 사뭇가 계곡의 풀들이 따사로운 봄 햇살을 받으며 땅에서 돌아나듯 하나님의 완전하신 회복의 말씀은 우리의 죽었던 영혼들을 다시 살려낸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성경은 권력 그 자체를 정죄하지 않는다. 인간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력은 필요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권력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가르친다. 중요한 것은 삶의 마당에 하나님께서 이 권력을 하사하시는 의도를 발견하게 된다. 그것은 나사로에게 병의 치유보다 더 좋은 선물을 주시고자 함이었다. 치유는 필요하고 좋은 것이다. 그러나 모든 치유는 일시적 해답에 불과하다. 치유보다 더 좋은 것, 영원하고도 완벽한 해답을, 주님은 불행에 당한 이 자매의 가정에게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다. 바로 부활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4월, 작가들의 말말말



반도체와 같은 정밀 기계를 만드는 공장에서 오염된 공기를 걸러내는 공기 청정기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세상 죄로부터 분리 차단할 영적 공기 청정기가 필요합니다. 그 영적 공기 청정기가 바로 회개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진정한 회개는 다른 이의 용서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용서 없는 회개 또한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의 열매는 용서입니다. 그 열매로 인한 행함이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인생이라는 무형의 건물을 건축해 가려면 영적 다림질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요동치지 않는 바른길로 인도하는 영적 다림질을 꼭 기억하십시오.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에는 반드시 내·외적인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마치 감기 환자가 열이 나고, 콧물이 흐르고, 기침이 나듯 말입니다.

전하준 '회개, 거듭남 그리고 전도'



이 비유는 밭의 비유가 아니라 씨 뿌리는 자의 비유다. 도저히 결실할 수 없는 척박한 땅에 강한 의지와 힘으로 씨를 뿌리는 사람과 그 사람에 의해 여기저기 떨어져 죽은 그 씨에 대한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비유의 주인공은 인간이 아니라 씨를 뿌리는 하나님과 한 알의 씨가 되어 떨어진 예수 그리스도다. 신구약 성경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다. 등불로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를 받아 죽어버리셨어도 등불은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은 약속을 취소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일으키셨다. 인간 측에서 보면 예수님을 죽였는데 그 결과 구원을 받게 된 위대한 역설이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셨다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완성될 것이다.

김민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우리의 삶은 영원한 삶이 있다. 그것은 이 땅을 벗어난 실존이며, 이 땅의 삶에 속하는 것들을 초월한 것이다. 영원한 삶은 이 땅에서 경험한 최고의 순간들을 영원히 즐기는 것이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다. 한국에서 우리는 비로소 최상의 삶을 경험하게 되며, 따라서 영원한 삶을 사후(死後)의 삶(afterlife)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땅의 삶은 사전(死前)의 삶(beforelife)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다 정확한 표현일 것이다. 우리의 몸은 무덤에 묻혀 없어 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진리를 확실히 믿기 바란다. 몸을 무덤에 두는 것은 금광석을 용광로에 넣는 것과 같다. 똑같은 금으로 다시 나올 것이지만, 모든 불순물은 제거될 것이다. 모든 귀중한 것은 그대로 남을 것이지만, 썩을 것, 더러울 것, 죄 된 것은 없어질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 만드신 땅을 본 적이 없다. 우리가 보고 있는 지구는 원래 모습의 희미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새 땅에 대한 갈망이 더 커지지 않는가? 저주로 인하여 빛을 잃은 현재의 지구조차 때론 너무나 아름다우며, 저주 때문에 연약해진 우리의 몸조차 이 땅의 아름다움과 경이에 압도된다면, 새 땅은 얼마나 더 장엄할 것인가? 찰스 스펀전 & 랜디 알론 '우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신간 **윌리엄 에임스의 기독교 신앙의 정수**

하이델베르크 소요리문답은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그리고 자녀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려 주는 지침서다. 저자 윌리엄 에임스는 영국 출신 청교도인로서 크라이스트 대학교에서 공부를 마친 후 네덜란드 프라네펬 대학교에서 신학 교수직을 하고 로테르담 회중교회 협동 목사로 섬길 때 많은 청교도에게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 견줄 만한 청교도의 수작인 『신학의 정수』를 집필했으며 뉴잉글랜드 청교도들은 칼빈의 작품보다 그의 작품을 더 많이 인용했다.

이 책은 에임스가 학교 학생들에게 교리와 신학을 가르치기 위해 하이델베르크 소요리문답서를 발전시킨 것으로, 52주 설교 또는 강의 형식을 띠는 동시에 교리문답서의 기능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각 교리를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며 교리마다 실제적인 적용이 들어있다.

저자는 책 속에서 “참된 최고의 선은 하나님과 맺는 연합



과 친교에 있다. 시편 4편 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라고 기도한다.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최고의 선이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언약의 개념이 들어 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곧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과의 교제이며, 이는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것이다”라고 했다.

이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고 또 확신해야 한다. 본문 말씀은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말한다. 어떤 사람들이 그들의 특정한 죄에 머물러 있는 동안 자신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신자들은 자신이 영원한 축복과 구원에 참여한다는 것을 특별히 확인할 수 있다. 저주에 대한 보증이 회개하지 않는 죄인이나 범법자에 대한 율법에서 오는 것과 같이, 이 축복의 보증은 복음의 약속을 통해 회개하고 믿는 죄인에게서 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선행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원인이 아니

라 의롭게 된 사람의 결과이자 열매이다. 우리의 선행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의롭게 하는 어떤 힘도 가지고 있지 않다. 성령으로 인한 선행이 공로나 칭의를 보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와 한 인격으로 결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일은 신성한 공로와 가치가 있다. 성령은 우리 선행의 주된 원인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 외적 효력을 지니며, 사람과 개인적으로 연합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행위에 따라 주어지는 보상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이다. 보상은 일의 공로보다는 일꾼의 인격에 은혜와 선의로 주어진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기도는 우리가 주의하여 행해야 할 주요 의무 중 하나다. 육체의 생명이 호흡에 있는 것처럼 기도는 영적 생명에 있어서 호흡과 같다. 기도를 통해 모든 종류의 유혹을 가장 잘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중국부역자들**

친중 넘어 중국 추앙하는 중중과 부역 자행 중국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 있어야

중국부역은 이미 우리 사회를 장악한 좌파-진보세력을 규정하는 또 다른 본색이 됐다.

친일과 친중, 혹은 친미, 친러 등 한반도 주변 4강 관계는 구한말 이래 우리 생존을 가능하게, 풀어야 할 외교전략이자 숙제였다.

책 '중국부역자들(서고)의 저자 서명수는 외교전략인 친중을 넘어 무조건 중국을 추앙하는 중중(從中)과 '부역'이라고 여길 정도로 비굴한 중국사태행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말한다.

또 지나친 중국사대가 중국부역으로 발전하며 전방위적인 '초한전'을 펼치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경계와 경각심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한다.

이수지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제가 읊어낸 책입니다. 박호철 목사 (양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1)

요 21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22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23 포도주가 떨어지자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24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
 25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26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되는 돌항아리 여섯이 놓였는지라
 27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28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갔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29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210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심각한 위기입니다. 요즘 경기가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새해부터 물가는 오르고 돈 없는 서민들은 앞으로 살아갈 것을 생각하면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저 애들이 굴 먹고 싶다 해서 굴 사러 갔는데 굴 값이 왜 이리 비싼지 도무지 살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 새해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밝고 희망차야 하는데, 미래에 희망에 부풀어서 그렇게 가야 하는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가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잔치의 포도주가 풍성하여야 기쁘고 즐거운 잔치가 될 텐데 잔치 가운데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세상이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기쁘고 즐거워야 할 인생이 슬프고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인생의 위기, 이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본문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가나의 혼인 잔치와 같은 우리들 인생에서 큰 변화와 전환을 맞이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 이 말씀을 우리가 꼭 붙들며 큰 변화와 전환의 역사를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의 어머니가 나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 위기의 상황 가운데 도움을 청합니다. 3절에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모든 즐거움과 기쁨이 사라진 고난과 궁핍함, 슬픔이 가득한 자리에서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예수의 어머니처럼 예수께 도움을 청하려 할 것입니다. 이는 매우 귀한 모습입니다. 매우 올바른 자세입니다. 구원자이신 예수께 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기도하고 구할 수 있는 올바른 대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위기의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여주시 예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어머니 마리아가 위기의 자리에서 예수께 요청을 했는데 생각지 못한 예수님의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말에 예수님의 대답은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까”라는 차디찬 거절이었습니다. 이같은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큰 당혹감을 가져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고 응답하여주시는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지 우리는 당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주님의 말씀을 깊이 헤아리고 그 의미를 잘 붙들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깊은 뜻과 주님의 사정을 헤아릴 때 우리는 이 말씀 뒤에 역사하시는 사랑과 자비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자리, 삶의 위기의 자리란 어디서부터 온 것입니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것은 하나님, 주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자리에서 경험하는 삶은 곤궁이고 그것은 지옥과 같은 자리라 할 수 있습니다. 지옥과 같은 고통은 결국 주님과 상관없이 산 자들이 맞이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끝 날에 그러한 지옥이 있습니다. 주님과 상관없이 산다 간 인생이 맞이하는 지옥, 그 처절한 고통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세상이 주는 그 쾌락과 즐거움에 빠져 그 쾌락과 즐거움 뒤에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얼마나 불쌍한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포도주가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과 쾌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금방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무에는 그보다 더 큰 갈증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로 알아야 합니다. 지옥의 고통이 기다리고 있는 자리,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져 위기를 맞이한 자리란 바로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감으로 맞이한 자리라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지는 위기, 그것을 모면하고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예수, 하나님이라는 이 우주적 진리를 마주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이것을 부정하고 거부하고 다른 구원과 해결책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구원과 해결책으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생각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돈이 자기 인생의 구원이고 해결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십계명에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데 돈의 신, 맘몬을 섬깁니다. 돈의 우상을 숭배합니다. 돈의 우상, 이는 거짓된 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이나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이나 이 둘 중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저도 일하고 돈을 벌고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것을 생각하며 일하게 됩니다. 나는 주인은 누구인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이것이 분명해야 합니다. 우리 삶이 돈의 노예인가 하나님의 종인가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되 시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다 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냐고 하고도 하지만 돈을 받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 지 돌아보아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
 서광교회 제공 seogwangchurch.org

바이블지식IN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고린도후서 5:17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라고 선언합니다. 성경에서 ‘새로운’으로 번역될 수 있는 헬라 단어는 두 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오스 neos가 있는데, 이 단어는 방금 생겨났지만 비슷한 것들이 이미 존재 할 때에 사용됩니다. 이 구절에서 “새롭게”로 번역된 헬라 단어는 카이노스 kainos인데, 이는 “이전에 있지 않던 전혀 새로운 것이 지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의 옛 자아를 깨끗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 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베드로후서 1:4)가 됩니다. 하나님은

진히 그분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중생하고 새로워지고 거듭나게 됩니다. 과거의 본성은 영적으로 생각하는 반면, 새로운 이 피조물은 영적으로 생각합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그분을 섬기는데 헌신합니다. 이러한 순종과 헌신은 옛 본성으로는 행할 수도 없고 심지어 바라지도 않던 것들이었습니다. 옛 본성은 영적인 일들에 대하여 죽어 있었고, 스스로 살아날 수도 없었습니다.
 옛 본성은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에베소서 2:1)에 있고, 오직 초자연적인 각성에 의해서만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그분이 우리 안에 거주하실 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히 새롭고 거룩한 본성과 썩지 않는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의 옛사

람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해 죽어 있었고 장사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분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려고” (로마서 6:4) 우리를 일으켰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라면,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어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로마서 6:5-6);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아납니다(에베소서 2:5); 우리는 그분의 행상을 본받습니다(로마서 8:29); 우리는 정죄로부터 자유 하며 이에 율례를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합니다(로마서 8:1). 우리는 다른 신자들과 함께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입니다(로마서 12:5). 신자는 이제 새로운 마음을 가졌으며 (에스겔 11:19),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에베소서 1:3).
 그리스도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구원을 확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자주 우리는 앞에서 묘사된 방식대로 살지 않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새로운 본성이 옛 육체의 몸에



겨함으로써 이 둘이 서로 싸우기 때문입니다. 옛 본성은 죽었지만, 새 본성은 그것이 머물고 있는 옛 “장막”과 싸워야 합니다. 악과 죄는 여전히 존

재하며, 신자는 이제 그것들을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보고, 그것들은 과거처럼 더 이상 신자를 주관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이제 옛 본성이 할 수 없었던, 죄에 대한 저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과 기도와 순종을 통해 새 본성에 영양분을 공급할 것인지, 또는 그러한 것들을 무시함으로써 육체를 먹일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낙낙히 이기며”(로마서 8:37),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우리 구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빌립보서 4:13).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받고 용서받으며 안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임양되고, 의롭게 되고, 구속함을 받고, 화복 되고, 선택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기쁨과 평화로 가득 차며,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부여받습니다. 그리스도는 얼마나 멋진 구세주 이십니까!
 캣첵스투스 제공

광동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Kwangdong

제조 · 판매원 : 광동제약(주)

침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침향 16%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선착순 500명 한정!}
※ 증정품 소진 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 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희의 진한 정성, 광동 쌍희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롤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백판기 목사의 **영어로 읽는 로마서(93)**

로마서 8장 12절

12. Therefore, brothers, we have an obligation—but it is not to the sinful nature, to live according to it.

Therefore : 그러므로 ; brothers : 형제들아 ; we have an obligation-- : 우리가 빚진 자로되 ; but it is not to the sinful nature :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 to live according to it. : 육신으로 저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한다. 이 구절 말씀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는 골로새서 3:5의 말씀이나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는 갈라디아 5:24의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중세시대에 있어서 고행주의, 거룩주의를 표방하면서 육신의 고통을 견디며, 육신을 자랑하는 옷지 못할 아이러니를 연출했다. 즉 극도로 육신의 고통을 통해서 이 구절의 말씀을 실천하려 했던 것이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독신주의가 결혼보다 영성이 높다는 사상이 팽배해 있다.

베드로전서 4:1-2

1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에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감 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2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1 Therefore, since Christ suffered in his body, arm yourselves also with the same attitude, because he who has suffered in his body is done with sin. 2 As a result, he does not live the rest of his earthly life for evil human desires, but rather for the will of God.

신명기 8:3

3 너를 낫추시며 너로 주리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3 He humbled you, causing you to hunger and then feeding you with manna, which neither you nor your fathers had known,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the LORD.

▶해석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백판기 목사(예수날사랑교회)

whatever belongs to your earthly nature: sexual immorality, impurity, lust, evil desires and greed, which is idolatry. 6 Because of these, the wrath of God is coming.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저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로마서 8장 13절

13.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you will die;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you will live,

For if you live according to the sinful nature :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 you will die :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but if by the Spirit you put to death : 영으로써 ~죽이면

the misdeeds of the body : 몸의 행실을 ; you will live. : 살리니

▶중요한 단어, 속어

misdeed 악한 행실. The teacher pinned the student's ears back for his misdeed. : 학생이 잘못을 해서 선생님이 크게 꾸짖었다. //In his magnanimity, he forgave his friend's misdeed. : 그는 넓은 도량으로 친구의 잘못을 용서했다. //it's not fair to blame them for their parent's misdeeds. : 그들의 부모가 저지른 비행에 대해 그들을 탓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 //Sooner or later, his misdeeds[evil doings] will come to light. : 그의 악행은 곧 드러날 것이다. put to death 죽이다.죽게 하다. put to death the misdeeds of the body : 몸의 행실을 죽이다.

로마서 13:11-14

11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깬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왔음이니라 12 밤이 깊고 낮이 가까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13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14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11 And do this, understanding the present time. The hour has come for you to wake up from your slumber, because our salvation is nearer now than when we first believed. 12 The night is nearly over; the day is almost here. So let us put aside the deeds of darkness and put on the armor of light. 13 Let us behave decently, as in the daytime, not in orgies and drunkenness, not in sexual immorality and debauchery, not in dissension and jealousy. 14 Rather, clothe yourselves with the Lord Jesus Christ, and do not think about how to gratify the desires of the sinful nature.

▶해석

▶중요한 단어, 속어

obligation 의무,책임,은인,값아야 할 채무. repay an obligation : 은혜에 보답하다. //an indispensable obligation[duty] : 피할 수 없는 의무. //There is no cost or obligation. : 비용이나 의무 사항은 없습니다.

according to ~에 따라서. it(=the sinful nature). The octopus changes color according to its surroundings. : 문어는 사는 곳에 따라 체색을 바꾼다. //According to the study this new pheromone-enhanced scent helped some older women attract men. : 연구에 따르면 페로몬이 첨가된 이 새로운 향수는 나이든 여성이 남성을 유혹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육신에 빚진 것이 있다고 여겨진다면 당장 그것을 무시해 버려라. 육신에 진 빚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차피 육신을 따라 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육신에 진 빚은 빚이 아니다. 당신이 구원받은 순간 육신에 지고 있던 모든 빛은 자연 소멸되었다. 어떻게 말인가? 다음 구절을 읽어 보라. 구원받은 당신이 지금 빛이 있다면 그 빛은 성령에 대하여 지고 있는 빛이다.

골로새서 3:5-6

5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6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 5 Put to death, therefore,

오늘의 예화

나를 빈손으로 돌아가게 하지 마세요

아프리카 선교사인 로버트 마렛 (Robert Moffat)은 이렇게 자신의 경험담을 말했다.

한번은 15마일이나 되는 먼 거리를 걸어 한 여인이 나를 찾아왔다. 그 여인은 나에게 '신약성경' 한 권을 얻기 위하여 온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부인 죄송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책이 없으니 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럼 나는 빈손으로 돌아가야 하나요?"

"예, 안됐습니다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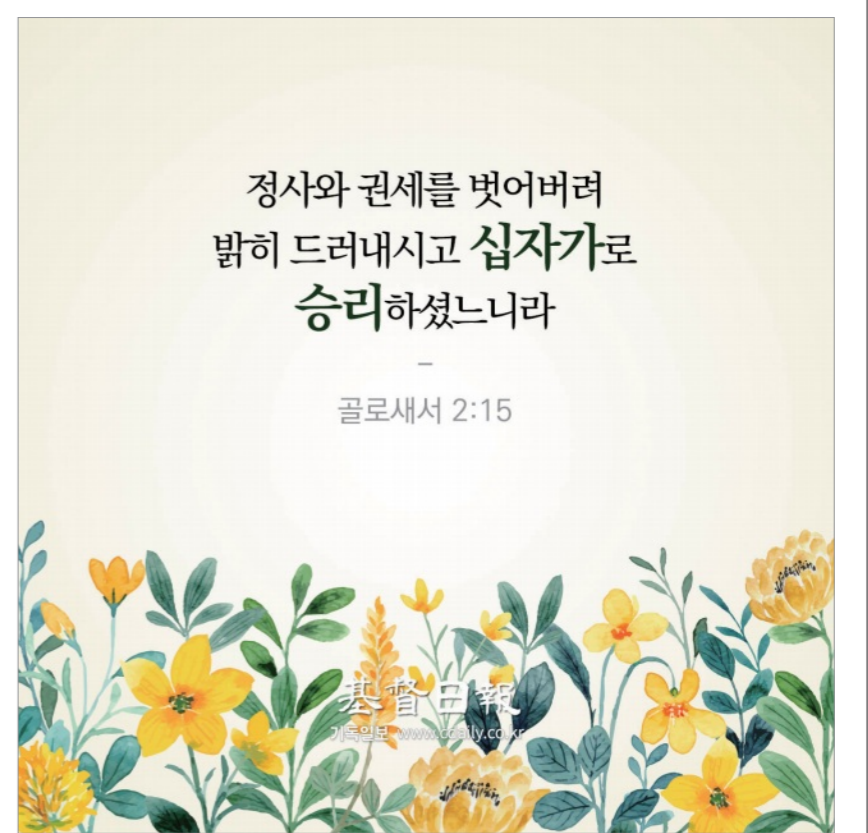
"오! 저는 며칠 전 친구에게서 한 권의 책을 빌려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와서 다시 가져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나와 내 가족은 슬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참다운 삶의 행복을 주는 책이 지금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장이 있는 시골 저편, 아무도 살고 있지 않은 곳에 우리 가족만이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우리에게 삶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그 책을 읽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입니다. 오! 가서 우리를 위해 제발 책을 가져다 주세요. 분명히 어디엔가 한 권의 책이 남아 있을 것입니다. 저로 하여금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 찾아봐 주세요."

나는 매우 깊은 감명을 그의 얼굴과 이야기 속에서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려 주세요. 다시 한 번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나는 여기저기를 뒤져 한 권의 책을 찾게 되었고 그것을 그녀에게 가져다 줄 수 있었다. 만일 여러분이 그때 그 여인의 얼굴을 지금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여인의 얼굴은 광채가 번뜩였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녀는 나의 손을 꼭 잡고 거기에 쉴 사이 없이 입을 맞추고는 감사하다는 말을 하는 것이었다. 그 여인은 그 한 권의 책 '신약성경'을 가슴에 꼭 안고는 기쁨을 누리며 돌아갔다.

은혜 한 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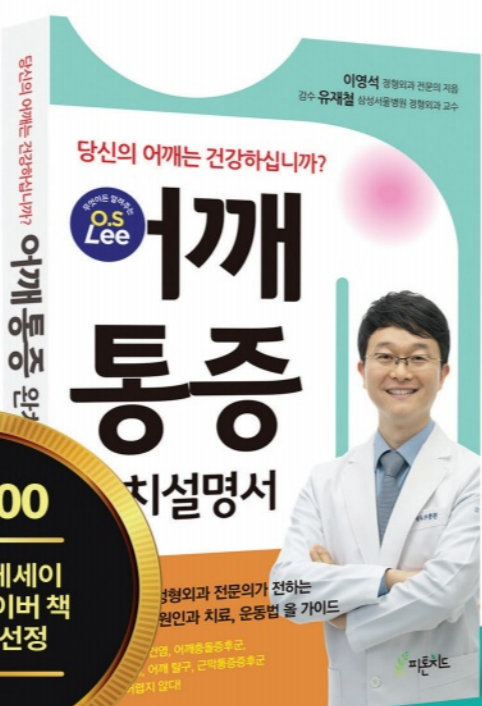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골로새서 2:15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성지순례 헤로디온 유적지에서 발견된 ‘로얄 박스’

유명한 유대 왕의 호화스러운 생활에 대한 증거를 더해준다

최근 발굴을 통해 헤로디온(Herodion)에 있는 헤롯 왕의 개인 극장 상부에 지어진 ‘로얄박스’가 공개됐고, 이로써 유명한 유대 군주가 누렸던 호화로운 생활 방식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찾을 수 있게 되었다. 구쉬 예저온 마을의 동쪽 여귀에 있는 헤로디온 국립 공원의 건축 단계에서 행해진 이 발굴은 예루살렘 히브리 대학 고고학 연구소의 후원 하에 에후드 네제르 교수(Prof. Ehud Netzer)가 지휘했다.

2008-2009년에 처음 발견된 이 극장은 2007년 발견 당시에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헤롯 왕의 묘와 가까운 언덕 중턱에 있다. 상대적으로 작지만 멋지게 장식된 극장은 대략 기원전 15년에

지어졌으며, 네제르 교수의 말에 의하면 같은 해에 로마 제국의 두 번째 권력자였던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방문했다고 한다.

가로 8미터, 세로 7미터, 높이 약 6미터인 ‘로얄박스’는 극장 건물의 상부에 있는 방틀 중앙에 있다. 이 인상적인 방은 극장에서 공연이 있을 때 당연히 왕과 왕의 측근들, 가족들이 지냈고 무대 방향으로 완전히 트여있다.

뒤와 옆의 벽은 이스라엘에서는 흔히 볼 수 없지만, 당시 이탈리아의 로마와 캄파니아에 존재했다고 알려진 방식의 벽화와 석회 조형의 정밀한 구조로 장식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을 통해 네제르는 아마도 유대를 방문하기 일 년 전에 그리스의 레스보스섬에서 헤롯을 만난 마르쿠스

아그리파가 보낸 이탈리아 예술가들이 이 공사를 했을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이 방의 하이라이트는 양쪽에 셔터가 달려있고 다양한 자연주의적 풍경이 담긴 일련의 독특한 창문들이 있는 벽의 윗부분이다. 전원의 경치, 나일강, 달이 달린 큰 배가 그려진 해상 경치 등의 풍경이 소재로 이용됐다. 한 창문에서는 나무 모양과 동물, 사람들의 모습을 구별할 수 있다. 또 몇 개의 창문은 손상되지 않은 채 벽에 남아있는 반면 다른 창문들은 바닥에서 조각들로 발견되어 현재 이스라엘 박물관 연구실에서 복원 중에 있다.

셔터가 달린 창문들에는 이탈리아의 중기 후반 폼페이 스타일이 나타나고 주로 극장 무대나 정물 같은 비현실적인 장면이 묘사되었다. 헤로디온의 창문과



가장 유사한 것은 기원전 15-10년경의 폼페이에 있는 “황제의 별장”이다.

발굴 중에 모은 자료는 극장의 생애가 10년도 안 된 매우 짧은 기간이었음을

을 증명한다. 극장은 헤롯 왕이 죽기 얼마 전 원뿔 모양의 인공 언덕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파괴됐다. 또 인공 언덕과 언덕의 아래에 위치한 유명한 기념비적인 계단을 건설하는 동안 ‘로얄박스를 포함한 극장의 일부는 임시적으로 건축자들이 이용했는데, 이를 벽에 남아있는 그들의 발자국, 조리 시설과 낙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헤롯 왕 무덤의 유물들을 모은 첫 전시회를 곧 개최할 예정인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박물관이 자금 조달과 복잡한 ‘로얄박스의 보존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다.

로얄박스 발굴 장소는 극장이 부분적인 복원 공사를 하는 동안 방 주변에 특수 보호 구조물을 설치한 후 대중에게 공개된다. 이스라엘 관광청

이야기하늘나라

학생의 헌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명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귀한 생명을 우리가 잃는다면 다시는 찾을 길이 없을 것입니다. ‘천지는 무시종이요, 인간은 유생사(天地無始終 人間有生死)라 하여 세월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흘러가지만, 우리 인생은 80년이나 혹은 100년이라는 한 생애를 가지게 되는데 불과합니다. 이 하나밖에 없는 우리의 생명, 짧은 시기밖에 살지 못하는 우리의 한 생애를 어떻게 사용하여 어떻게 지내야 하겠습니까? 더구나 우리가 가지는 청년 시대는 아주 잠깐 되는 순간입니다.



한번 지나가면 찾아올래야 찾을 수 없는 가장 귀한 시기입니다. 누구나 청년 시대는 가질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가질 수 없는 학생시기를 여러분은 가지게 되었으니 여러분의 행복은 무엇으로 형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잠깐 되고 귀한 행복스러운 학생 시대를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려고 합니까? 속절없이 가 버리려느냐, 뜻 있게 고상하게 보내려느냐? 나는 여러분은 이 시대를 유익하게 뜻 있게 고상하게 지내려는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할 일리 많겠지만, 제일 필요한 것은 먼저 몸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물유본말 사유종사(物有本末 사유종사)’라는 말이 있고 서양 속담에는 ‘아무리 바빠도 수레를 말 앞에 못 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금을 물론하고 동서양 역사를 살펴보면 혹은 국가를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운 역사적인 인물들은 소년 시대에 온전한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대의 영웅 한니발은 9세인

가 11세 때에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였으며 앳사의 성자 프랜시스와 존 녹스 역시 소년시대에 하나님께 헌신하였고 영국 교회의 대부흥가 웨슬레는 학생시대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쳤습니다.

먼저 우리 몸을 주께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우리의 몸을 잘못 드리게 되는 일이 많습니다. 히틀러를 위하여 나치스 제단에 몸을 드린 독일 청년들, 무솔리니를 위하여 파시스트 제단에 몸을 드린 이태리의 청년들, 일본의 천황을 위하여 제국주의 제단에 몸을 드린 일본의 청년들, 그리고 유물론 철학을 토대로 한 공산주의 제단에 몸을 드리고 떠들어대는 가련한 청년들, 이 모든 청년들은 한 몸을 헛되게 잘못 드린 것입니다.

나치스 제단에 뿌린 희생의 피, 파시스트 제단에 뿌린 희생의 피, 제국주의 제단에 뿌린 희생의 피, 이렇듯 많은 희생의 피는 한 번 역사의 바퀴가 구른 오늘 날에 와서 무엇이 되고 말았습니까? 피를 흘리되 값없이 흘리는 피처럼 참으로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산주의 제단에 드리고있는 저 희생물의 장례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몸을 드리되 누구에게 드리려고 합니까? 온전히 거룩한 하나님께,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잠깐 떠들다가 소리치고 마는 물거품과 같은 제단에다 몸을 드리다가는 무참히 쓰러지고 마는 어리석은 청년이 되지 마십시오.

예수님닷컴 제공

향유육합

목사에게 속지 마라

묵상 중에 이런 말씀이 찾아 들었다. “돈에게 속으면 집을 잃는다. 바깥 여자에게 속으면 집안에서 쫓겨난다. 목사에게 속으면 영원한 집에 못 들어간다.”

나는 지금까지 만난 성도들과 내가 장래 예식을 한 성도들이 진짜 천국에 있을까? 내가 지옥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니길!

왜? 진정 내가 회개케 인도한 이가 얼마나 되는가! 애용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 나 자신은 진정 얼마나 회개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는가?

집 팔고 한 평의 땅도 나를 위해 소유하지 않고, 자식에게 재산도 물려주지 않고, 내가 쓰고 남은 재산은 다 주께 드리고 떠나기로 하며 살아왔다. 이 정도는 변함없이 해내며 가리라.

주 앞에 목상하며 요즘 깨닫는다! 이것과 온전한 회개에 이르는 것은 또 다른 일이다.

구제하는 선행은 해보면 별것 아니다. 그까진 죽어서 가지고 가지도 못할 재산 그것 없이 살자는 것!

구제하고 나누어 주고 보면 누구나 다 안다. 별것 아니라는 것일!



온전한 회개와 구원의 열매를 맺고 사는 것이 이것이 진짜 큰일이다. 어제는 공동체 식구들과 수요 영성 클래스에서 성도들에게 말했다.

“목사에게 속지 마세요. 이주연 목사에게 속지 마세요. 눈을 뜨고 나니 천국이 아니면 어찌지요? 회개케 해주어 구원의 열매를 맺도록 인도하지 못하는 목사면 따르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산마루서신 <http://www.sanletter.net>〉은 이 땅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혼들과의 영적인 대화이며, 진실한 만남이며, 사랑의 소통입니다. 참된 삶을 구하는 모든 영혼들과의 진실한 주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이창한의 데스크 칼럼

넷플릭스 드라마, '삼체' 기독교적 해(solution)를 구하다

'삼체의 문제'(three body problem)의 핵심을 읽어내라

◆중국 SF 대작에서 드러나는 종교적 이미지와 부정적 연상

이 소설은 류츠신의 작품이며, 아시아 최초로 휴고상을 수상한 작품이기도 하다. 이 소설의 모티브가 된 '삼체 문제'(the Three Body Problem)는 고전역학에서 아이작 뉴턴이 프린키피아에서 세 개 물체의 만유인력 상호작용에 대해 최초로 언급하면서 물리학계에서는 난제 중의 난제의 명제다. 18세기 중반부터 라그랑주, 라플라스, 아이작 뉴턴 등 여러 경쟁한 수학자들이 달려들었지만 다들 우울증에 걸릴 정도로 정확한 해를 구하지 못했다. 결국 1887년에 앙리 푸앵카레가 삼체문제의 일반해를 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하면서 "답 없음으로 문제를 풀었다."

이후로도 특수해에 대한 연구는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Netflix 시리즈 '삼체'는 인간과 외계 문



명의 갈등을 통해 우주 사회학이 접목되어야 할 만큼 우주 문화 충돌을 탐구한다. 이 드라마는 기독교적 상징과 모티프를 사용하여 인류의 멸망과 심판을 그려면서, 현대 미디어에서 자주 나타나는 반종교적 성향을 오히려 드러내고 있다고 평가 받는다.

첫 번째 해석에서 '삼체'는 세 개의 태양과 그에 따른 문명의 멸망을 중심으로 한다. 이 설정은 기독교의 삼위일체와 종말론적 이미지를 연상시키며, 종교적 심판과 구원자를 기다리는 인류의 모습을 통해, 종교가 궁극적으로 인류에게 불안과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시종 드라마 속에서는 삼체인들에게 "my lord"라고 하면서 기독교를 포함한 종교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자연스럽게 연출하고 있다.

두 번째 해석은 드라마 속 외계 문명과 그들의 지구 침략 계획을 다룬다. 이들은 안정적인 전체 환경을 가진 지구를 침략하여 인류를 정복하려고 하고, 이 과정에서 종교적 이미지와 함께 종말론적 심판을 준비하는 인류의 모습을 통해, 기독교적 종말론이 어떻게 사회적 혼란과 공포를 조장

하는지를 보여준다. 아이러니컬한 대목은 삼체인들은 거짓말을 할 줄 아는 인간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며, 이들은 인간들에게 오히려 두려움을 느낀다. 인간들이 믿는 종교의 한계성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세 번째 해석은 넷플릭스 드라마의 서구화된 버전을 통해 기독교 문화와 더 넓은 서구 문명의 가치를 재고한다.

드라마가 각색된 과정에서 다양한 문화적 요소가 추가되어, 국제적인 대화와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지만, 이는 동시에 기독교의 보편적 메시지만 '전 세계적인 이웃 사랑과 평화 추구'를 간과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이 드라마의 스토리는 이번 시리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학적으로 접근하려는 소위, 하나님은 없다 '패싱 하나님'(passing God)으로 몰입시킬 수 있다는 위험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삼체' 드라마는 글로벌 시대의 문화적 소통과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면서도, 더 깊은 인간적 가치와 영적 질문에 대한 성찰을 촉구하고 있다. 비기독교인들에게 비치는 기독교인들에 대한 객관적 이미지를 살펴볼 기회는 생각할만 하다.

서양화가 임창순 작가, '봄 향기전' 개최



자신의 작품 앞에 선 임창순 작가. ©주최 측 제공



임창순 작가의 작품 '내사랑 그대품에' ©주최 측 제공

밝고 투명한 채색의 풍경화로

구상과 비구상을 넘나들며 작품 제작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화의 질감을 밝고 투명하게 활용하여 풍경화 느낌이 청량감 가득한 그림으로 만든 서양화가 임창순 작가. 그가 17~22일 '봄 향기전' 타이틀로 서울 도봉갤러리에서 개인전을 진행하고 있다.

작품의 주요 소재인 풍성한 꽃무리는 산뜻한 수채화를 연상하듯 꽃잎과 나뭇잎 색의 농도 차이가 입체적으로 만들어져 화면 속 이미지들은 살아 있으며, 여백 중 만난 이색적인 풍경은 지역의 특징과 사람들의 삶이 고스란히

반영된 예술로 탄생했다.

'봄 향기전'을 실시하는 임창순 작가는 "나의 생각을 그림으로 표현하는데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방식으로 구현하고자 노력했다. 일상에서 만난 풍경이나 색다른 경험을 미술적으로 해석하여 많은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고, 전시 중인 그림을 매개체로 각자의 아름다운 추억을 회상하는 휴식의 시간을 만들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작가는 (사)한국미술협회, 한국국전작가미술협회, 도봉미술협회 회원으로 자연의 아름다운 풍경을 밝은 색채로 재현하는 창작활동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있다.

이나래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Time,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and Cchannel. Rows are categorized by Morning (오전), Afternoon (오후), and Evening (저녁).

우리 마음속
첫번째 금융



이준석

임성재

황중근

정찬민

이수민

박상현

조우영

서요섭

2024 KPGA
우리금융 챔피언십 페럼클럽
04. 25 (목) - 04. 28 (일)

SBS Golf 2 생중계 채널번호 안내

GENIE TV 62	Btv 972	U+ tv 99	skyLife 219
----------------	------------	-------------	----------------



우리금융 챔피언십
티켓 이벤트 바로가기

주최 | 우리금융그룹

주관 | KPGA 한국프로골프투어

방송 | SBS Golf 2